

학 생 회 지

5000
YEARS OF
KOREAN
ART



제 16호 1980.1

U.W. 한국학생회

학생회지

목차

특집

1. 회원들의 협조 없이는 -----

학생회장 이국명

특집

I. 대학원과 학부와의 관계

2. 감정외의 차이는 별무

변재환

3. 학생회의 진로

신의순

4. 백치장도 맞 들면 낫다.

이용명

II. Freshmen Survey

5. Problems faced by freshmen

이성희

이용명

장태수

최앤나

III. 한국

7. 시사만화를 통해 본 한시대의
사회·정치상

편검부

14. 새해 아침에 쓰다보니

김학수

초대글

15. 5000 Years of Korean Art
(A personal appreciation)

Mr. Tom Kasa

26. 뜻과 목적

서영민

에세이

17. 인간의 승리를 위해

김상태

18. 에너지의 운제는 풀릴 것인가?

최원호

학생 부인 소감

22. 기다리는 기쁨

이 주 현

전 공 순례

28. 간호학과

김혜선

신입생들의 광장

23. 일기 속에서

최 승

23. The forgotten past

Veronica Chang

24. 신입생으로서 보낸 3개월

김 두 호

25. The Place I Bel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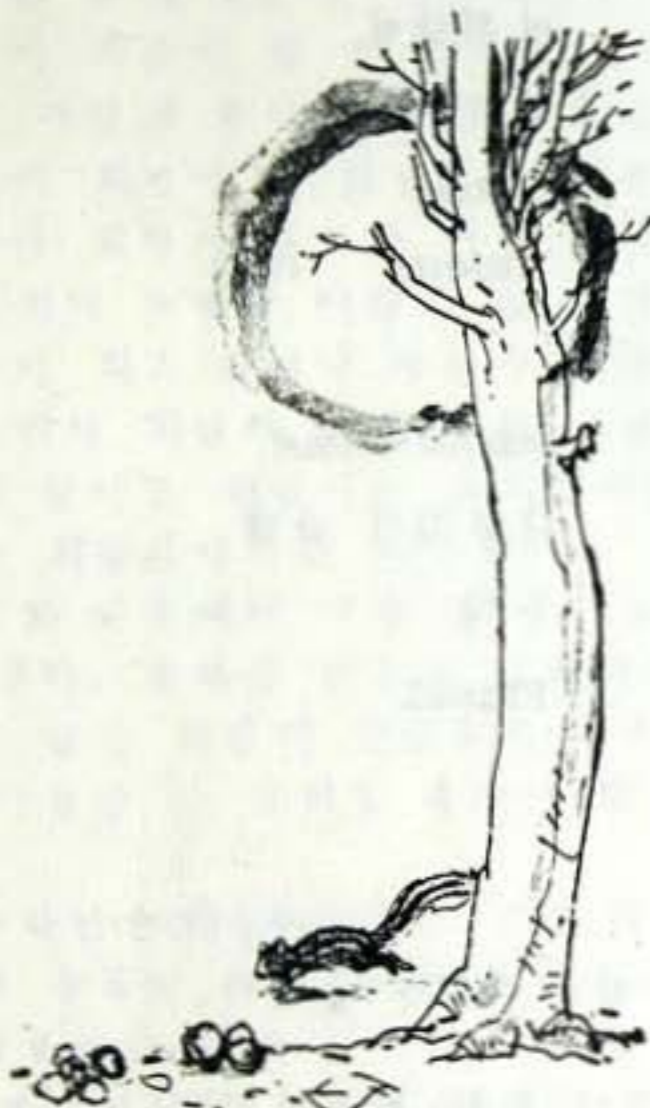
Elizabeth Lee

29. 학생회 소식

편집부.

30. 회원 동경

편집부.



KSA

■ 촛점 ■

회원들의 협조 없이는 ……

◀ 학생회장 이 규명 ▶

몇 년전만 해도 우리 학생회는 소규모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존재 하였으나, 이제는 근 250명의 회원을 가진 큰단체로 성장했다. 이로인해 여러가지 장점도 생겼지만, 회원상호간의 거리는 멀어졌고, 서로 얼굴을 모르는 정도는 예사인것 같다. 특히 대학원선배들과 학부생들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 같다. 이것은 지난 2, 3년동안 더욱 두렵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학생회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우리들이 풀어야할 과제이다.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이 수차례에 걸쳐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진전은 없었던것으로 믿어진다. 양측이 공동적으로 서로의 차이점을 주요원인으로 내세우고, 학생회를 분리하자는 의견까지도 적지 않게 나왔다. 여기서 나온 차이점은 연령의 차, 환경(교육수준과 생활방식)에 따른 가치관의 차 등을 들수있다. 그러나 단체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다양하다는 것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차이점이 많으니 분리하자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관념같다. 현실적인 시점에서 볼때도 학생회의 분리는 여러가지 무질서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과연 어떤측이 학생회를 대표하며, 분리후 양측의 협조는 누가 보증할 수 있을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회를 한 단체로 계속유지하는 전제하에, 학생회 활동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다.

여기서 가자 시급한 일은 양측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사실 양측이 멀어진 원인은 앞에서 말한 이유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대학원선배들과 학부생들간의 대화와 접촉이 없었던 것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믿는다. 앞으로 학생회는 많은 접촉의 기회를 마련 하도록 힘쓰겠다. 그렇지만 이런 모임은 새로운 목적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양측의 차이점이 크지만 그것에 관한 토론보다,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겠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많은것을 배울수 있을 것이다.

결론으로 회원들의 협조 없이는 이일이 불가능하니, 학생회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표하고, 이 관심을 행동에 옮겨 주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1979-80년도

학생회 연중행사 계획표

2월 초순	학생회기 발행
2월 중순	영화상영
3월 초순	탁구대회
4월 초순	FORUM
중순	TENNIS 대회
5월 초순	ASTAN WEEK
중순	학생회기 발행
하순	총회
6월 중순	PICNIC

1979-80학년도 학생총회가 열린다.

지난한때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올 한해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분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근 10년동안 기너왔던 학생회 헌법을 개정 반포하였습니다.

새로 취임한 임원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원진
 회장: 이규명, 부회장: 김종오, 신정숙
 총무: 오운도, 재무: 최연나, 서기: 원용준
 임원: 이기창, 이용명, 김혜선, 노경석
 김용수, 김현태, 윤태선,

운영위원
 박건동, 변계환, 이선형, 강태수,
 이성희, 이기숙

연락위원
 최계원, 김탁수, 신정숙, 김종오,
 고영관, 원용준



감정외의 차이는 별무

◀ 변 재 환 ▶

지난 동회 직전에 거론되었던 회장자격규정(대학원생만이 회장이 될 수 있었다) 철폐문제는 전반적인 회칙 개정과 동시에 일단락 되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일반적 지도자론이나 회칙에 명시된 대로 최다수 득표자가 된다는 규칙 외에 뚜렷한 대답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아직 논란이 되고 있거나 껄껄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어떤 그룹에서 회장이 나와야 할 것인가란 논제인 것 같다. 쉽게 말하면 회칙에는 정회원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회장직이지만 대학원에서 회장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학부에서 해도 좋다는 속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다. 분석적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거창한 주제이고 일반 회원의 관심도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기에 가능한 한 범위를 좁여서 짚막하게 말하겠다.

수학년수(修學年數)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발전단계가 명백한 학생들이란 점에서 여기서 나는 두 그룹(학부와 대학원)은 정형적 구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지역, 시류, 동향 등은 파벌간의 대립과는 성격이 달라서 오히려 문제를 도모하는 강경한 의견들이 상충하는 것 같다. 능력과 생활 배경에 공인된 차이가 없다면 당초부터 의견대립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뉘가 다르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얼마나 학생회 활동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알아 보자.

양측 주장의 표현이야 어떻든 학생회를 잘 되게 한다는데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검경해이 갖것이 학생회의 목적과 회장의 역할, 회원의 수적 구성, 그룹간의 차이점 그리고 감정적 측면 등이다. 일일이 따질 수 없으니 몇 가지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다.

회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생회의 목적이 원선도모, 학구열 고양, 권익옹호 등인데 이 말들이 아무리 진부하고 애매한지라도 모노한 만큼 함축성을 지녔다고 볼수있다. 각 카메고리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 지난 연말의 송년간치, 2년전에 있었던 문학 강연회 그리고 한국문학 교수직 폐쇄 반대운동을 들수 있겠다 이들 활동에 회장이 학부학생인 것과 대학원생인 것이 어떻게 그 성취도에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가 주제가 된다.

우선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일반적 차이를 나열해 보자. 대학원생이 나이와 경험이 많고, 학식이 높고 한국적 문화배경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반면 학부생은 미국 생활에 익숙하고, 인원수가 많아서 동조자가 많고, 시간적 여유가 많고, 전공에 집착않고 대외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질수 있다. 이 정도의 차이로는 뉘에서 열거한 정도의 활동을 할 수있다. 없다는 것은 장점이 안 된다. "상대방의 협조를 일어서"라는 귀절을 삼십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란 질적 문제와 참여도 그리고 시행 가능성 등 미묘한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야 할 것이 관심과 동기의 차이이다.

한국문학교수직 폐쇄반대운동이 있을 당시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을 뿐 관심과 집조도에서는 학부 대학원간에 구별이 안 되었고 학생회라는 조직 자체가 무척 잘 만큼 밖 고조사되적으로 조직되고 단합되었다. 이런경우(앞으로는 다른 형태로 일어날수 있다)에는 미숙한 학부학생이 회장을 해도 조금도 걸과외 저리 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다음이 고방 또 학술 세미나인데 학부학생이 회장을 한다면(학부생의 뜻에 보다 많이 부합할 것이란 가정아래)시행 가능성이 적게되한다 해도 그 주제가 고양적인 것에 머물 것이다. 보기 드물게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된 지난 문학 강연회에 학부생이 거의 참석치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겠다. 지난 망년회의 결과가 대표적인 연상이다. 대학원생이 거의 참석치 않았다는 것 외는 주최측의 준비와 이행은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학술 세미나의 질적 문제와 회원 동원의 기술적 차이외는 회원 개인의 참여의식(또는 감정)만이 문제로 남는다. 협조해야 한다는 당위를 적용하면 물론 이거니와 이 정도의 문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고 어느 정도의 동기가 발동하면 필요한 때는 하시라도 실현 가능성이 보인다.

단합이란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너무

이질적인 인터레스트를 가진 그룹끼리 공동목적의 성취라는 기본적인 요소를 상실한채 한 조직 밑에서 융화할 필요는 없기만 단체 활동에는 반드시 이해의 충돌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양측의 성취도에 너무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양그룹간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문안이 있으면 몰라도 또 다른 개척이나 강요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아무리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면 현상유기가 최선일 진데 지난 총회에서 중의를 모아 혁신을 가져온 우리 학생회 조직에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개인 감정의 노출은 될 수 있을 기언정 이성적 근거가 희박하다. 결론은 역시 최다수 득표자(즉 학부생 회장)가 회장으로 무방하다는 것이다.

(경제학 박사 과정)

학생회의 진로

◀ 신의 순 ▶

U.W.에서 같이 대학원수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새로운 얼굴들이 면차례 바뀌는 사이에 이곳에서의 유학생살도 벌써 5년째로 접어든다. 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여 오신 선배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동안 한인학생회의 커다란 전환점을 목격한 사람의 하나로서 앞으로 학생회 발전에 도움이 될까하여 몇가 적으려 한다.

내가 이곳에 와서 처음 느낀 학생회의 인상은 상당히 가혹적이며 화기에애한 것이었다. 여러모로 낯선 미국생활에 어리둥절한 신입생들을 따뜻이 맞아 격려하여 주고, 가혹중심의 송년잔치와 「피크닉」을 통하여 이곳에서의 외로움과 학업에서 오는 긴장감을 덜어주는 그러한 초근간 것이었다. 그후 점차로 이민자계들 중심의 학부학생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학생회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학부학생들을 학생회에 적극참여 시킬수 있을까 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동안 학생회를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학부학생들의 헌신적인 봉사도, 이제 한인학생회는 학부학생들의 협력없이 존속할수 없을 정도로 학부학생의 비중이 커졌고, 지난번 학생총회에서는 처음으로 학부출신 회장이 선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부학생들의 참여도가 증가하여 온것과는 반비례하여, 그동안 대학원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로 감소되어 왔다는 사실이 오늘날 U.W. 한국학생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현상이 학부학생들의 절대적 숫적 우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통이라고 樂觀的 大勢論을 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학부학생과 대학원생의 가치관및 학생회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두개의 학생회로 갈라질수 밖에 없다는 宿命論的 分派論을 주장하는 이도있다. 첫번째 大勢論에 대한 나의 견해는, 숫적인 열세를 이유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학업에 시달리다 보면 항상 시간이 쫓기고 고달픈것이 유학생살인 까닭에, 불필요하게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기 보다는 가만이 앉아서 주는 떡이나 받아먹자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기가 쉽다. 그러나 학생회는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학생회의 진로는 우리 하나하나의 참여와 관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할수 있을 것인가? 특히, 선배들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되어 오는 후배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조차도 누릴수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대공약수를 얻는것이지, 소수라고 하여 무조건 다수의 의사에 자신의 권익을 맡겨 아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면 大勢論의 장점은 한인학생회는 하나모 동쳐야 한다는 것을 大前提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두번째의 分派論은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이다. 사고방식과 가치관과연령이 전혀다르게 차이가 나는 두개의 異質 Group이 함께 어울려 마찰 내가는 비협조의 결과를 초래하기 보다는, 서로의 interest를 살릴수 있는 길을 뚫아가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회활동에 가의이건 마의이건 소극적이었던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이 견해를 현실적인 의견으로 동의할지 모르겠으나, 먼저 본명이 길고 기나가야 할 것이 있다. "Have you ever tried it before?" 그동안 학생회를 이끌어 나온 leader들은 모두 대학원생이었고 또한 학생회활동에 무관심하였던 쪽도 대학원생들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학생회의 흐름이 학부학생 위주였기 때문에 분리될수 밖에 없다는 견해는 가기모순에 빠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날 역대 학생회장들이 그도록 참여와 협조를 요구할때 의견란 것은 누구것는가?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대학원생 스스로에 의하여 버려졌음을 우리는 가인하여야겠다.

위의 두 견해와는 별도로, 자기들 책임에 소신껏 임해보겠다는 학부학생들의 왕성한 의욕을 살펴주어야 하며, 학생회 활동을 통하여 학부학생들의 자질 향상 및 identity 확립을 기대하여 보자는 指導者養成論

■ 특 집 ■

이 있다. 이미 학부학생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는 만큼 이 건제의 주장은 어느정도 실현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U.W. 한인 학생회는 몇몇 학부 학생의 training 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leadership training 이 목적이라면 A.S.U.W. 나 Asian Student Association 등 더 좋은 기회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건제에 대하여 나의 반대의견을 제시하다 보니 하나의 代案 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自己反省的 積極參與論이다. 첫째, 숫적 열세를 이유로 스스로의 권익을 포기하지 말자. 둘째, 학생회 분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를 대학원생들의 취향에 맞도록 개혁해 나가자. 셋째, U.W. 한인 학생회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협조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U.W. 제각 한인 학생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대표기관이라면 학생회는 하나로서 존속되어야 한다.

회장직은 대학원생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 강력히 주장하여 온 사람으로서 금년도 신입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최근 수년사이에 이곳에 오신 대학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날 학생회 활동에 대학원생의 참여도가 그토록 낮아진데 대하여는 나를 포함하여 이곳에서 먼저 학업을 시작한 대학원생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함을 통감한다. 그러나 먼저 온 선배를 탓하고, 대학원생이 소수임을 우러라고, 시간에 쫓김을 내세우다 보면 여러분의 권익은 끝내 돌려달지 못하고 만다. 학생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참여가 없으면 U.W. 한인 학생회는 학부학생들만을 위한 단체로 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금년도 대학원 신입생의 수는 20여명에 이르렀고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뒤로 계속 여러분들이 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기회는 항상 주어져 있으며 학부학생들 중에도 오히려 그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참여하여 달라는 점을 부탁하고 싶다. 일단 여러분의 적극참여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학생회는 학부, 대학원을 불문하고 회원전체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학생회에서 열심히 일하여 온 학부 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은것은, 비록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을 더 잘 알고 여러분의 유익한 고문을 줄수 있는 대학원생들을 최대한 알고 그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도를 여러모로 모색하여 보라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학생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만큼 여러가지 구상도 많겠으나, 지금까지

- 대학원과 학부와의 관계 -

학생회를 키워온 선배들에게 항상 협조를 구하고, 대학원생들의 관심사를 알아내어 그들을 다시 학생회로 이끌어 들일수만 있다면 학생회의 앞날은 보다 밝아질 것이다.

(경제학 역사과정)

백짚장도 맞들면 낫다

◀ 이 용명 ▶

저는 학부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지난번 학생회 총회의 결과를 미루어 아시겠지만 저는 학부생이 학생회를 맡아서 일을 해가는 것을 건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과격하게 말해서 아주 대학원과 학부가 갈라 지자는 주장도 해보았읍니다.

총회가 있기전에 대학원 선배님들과 학부생들과의 모론이 있었을때, 선배님들께서는 저희들이 학생회를 맡아서 일하려고 하는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생들이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고, 또 학생회를 이끌어 갈때 필요한 외부인사들과의 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학생회를 이끌어 가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험과 그것의 본바탕이 될기도다 과 결단심을 기르는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했읍니다. 만약에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가 언었고, 대학원 선배님들이 학생회를 이끌어 간다면 이년과 같이 학부생들이 불만을 품지 않것 같았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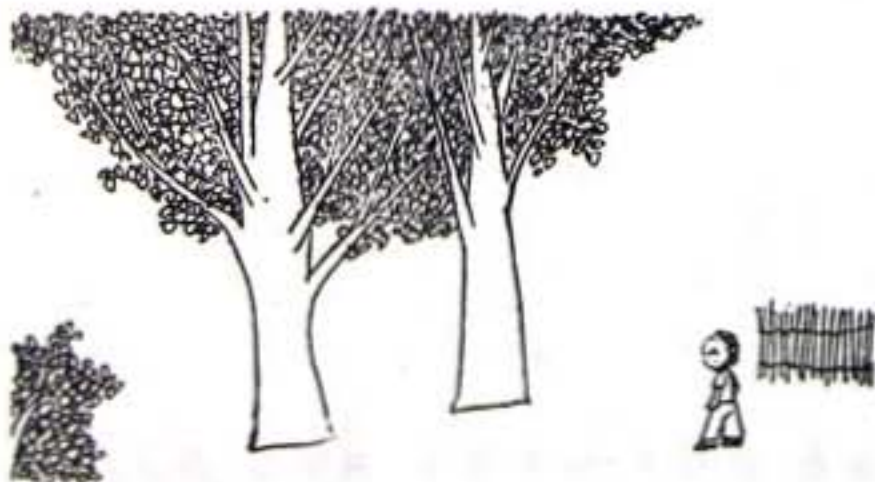
만약에 학부생들이 학생회를 이끌어 간다면 대학원 선배님들의 과거의 반응으로 보아 협조를 받지 못할것 같았읍니다. 학생회가 학부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한인 학생들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학부생이 주도한다는 이유때문에 대학원 선배님들의 참가를 저조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저희들끼리 학부생회를 만들고 대학원 선배님들은 대학원회를 만들어서 각기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고 너무나찰도 줄일수 있는 방편중에 하나라고 생각 했읍니다.

아름다운 선거후 학부생이 회장이 되고 전임원이 학부생에서 선출 되었읍니다. 대학원 선배님들은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으로 몇명 모시기도 했읍니다.

그 후 제가 임원으로 학생회활동을 맡으면서 저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학생회 망년 파티때 할 슬라이드를 위한 음악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슬라이드에 잘 맞을 만한 음악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임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기대하며 연습하기로 한 장소에 갔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약간의 비판을 받아야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선배님이 음악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음날 같이 모여서 2-3시간 걸린후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님이 저희가 준비한 음악을 모두 바꾸려 하실것 같아서 걱정했습니다. 마치 예년과 같이 대학원 선배님들이 주도하는 학생회를 느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배님은 음악을 몇개 골라서 원래의 것 중간에 집어 넣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몇곡이 저희들 마음에 맞지 않아서 원래것으로 대처하자고 말씀 드렸을때 선배님께서도 승락 하셨습니다.

모든것이 준비되었지만 망년회에서 슬라이드쇼를 끝내기까지는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은 감출수 없었습니다. 망년회에서 슬라이드쇼가 끝나고 여러분의 좋은 반응을 받고 모든일이 잘 되었구나 하며 선배님을 보았습니다. 선배님 역시 무척 으쓱해하시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만일 선배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한가지 설렘있던 것은 좀더 많은 대학원선배님들이 저희들이 준비한 망년회에 참석 하셔서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더욱 발전할수 있는 길에는 선배님의 많은 참고와 격려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PROBLEMS FACED by FRESHMEN

이성희
이장희
용태안
영수나

To examine the problems confronting this year's freshmen class, we held a discussion with a number of freshmen. It seemed that the problems brought up at this discussion were similar to the problems faced by freshmen each year. As freshmen they have to face drastic changes in their school environment.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where there were classes of only about 30-40 students and where they were able to maintain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classmates and teachers, they suddenly find themselves in classes that have as many as 700 students, thereby making close ties with professors almost impossible. Also, they have to adapt to the fast pace of college where individual discipline is necessary. Often, these problems together make them feel lost. As a Korean freshman, one can feel even more lost.

Among the biggest problems raised by the freshmen were: a) the problem of getting to know other Korean students, b) lack of knowledge about college, c) lack of group activities available to them.

The problem of getting to know other Korean students is, first of all, many incoming students do not know other Koreans because they simply have not been exposed to them. They might have come from a high school where they were the only Koreans and where they associated only with Koreans. Such a person may come to the University without knowing how to go about meeting other Korean students. Secondly, there are various peer groups, and as a freshman it is difficult to become a part of a group. This may be due to shyness and self-pride on both sides. Thirdly, there is a gap between recently arrived students and those who have been in the country for a while. These two groups have problems in communicating as well

as in differences of ideas. While this may not have been such a big problem before, it seems that as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raised and educated here increases along with the number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 Koreans, this problem will become greater. For instance, there are a few second generation Korean students attending the University this year and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ssociate with other Koreans. A great amount of effort by both sides is needed in order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other.

The second problem they brought up was their lack of knowledge about college. Aside from the problem of choosing a major, they face the problem of not having enough information even if they have already decided on a major. Although there are various departmental advisors and counselors available to assist them, they feel it is inadequate. And because of formal atmosphere, many freshmen are reluctant to go to counseling offices. Many freshmen expressed a desire for a more personal guidance from upperclassmen. It seems that they want more informal assistance. They want advice and information from upperclassmen who have the experience and the knowledge about the field they are interested in through informal discussions. We feel that this is a very good and a workable suggestion. 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KSA) can make it possible by providing opportunities where freshmen and the upperclassmen can get together.

The third problem raised was the lack of group activities available to them. Being a part of a minority group, many Korean students are reluctant to join many organizations and activity groups on campus. So it is natural for them to expect KSA to meet their needs. A few of them mentioned a desire to create various types of clubs such as fishing group, musical group, sports club, etc. Some of the female students voiced discontent with not having activities available to them. There doesn't seem to be any clear measures that can be taken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we feel that it can be done on an individual basis where those students with common interests can come together. With such group activities available, new incoming students would have more opportunities to get acquainted with other students.

The problems raised here do not necessarily reflect all the problems faced by the freshmen. It is unfortunate that we didn't have enough time and energy to talk with more students. But we believe, by talking with these students and through our own past experiences, that these problems are real and are problems that don't have any clear-cut solutions. Our hope is that through this article, more people will come to be aware of the problems and take positive steps to ease the problems faced by freshmen.



가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詩人 이어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靈魂과 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詩人 이어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베라도
 마음껏 뱉자

김수영 시선집 거대한 뿌리 (1974)에서
 김수영은 1941년 서울 매생이로
 시각음위에 시론, 수필, 일기, 번역 소설,
 평론 30여편을 남기고 1968년 교통사고로 타계

시사만화를 통해 본 한 시대의 사회·정치상

박정희 전대통령의 피살로 시작된 한국정치의 軀機는 그 저류와 표면에 있어서 변화의 방향을 간단히 예측하기 힘들다. 1인체제의 종말이 그 동안의 한국정치 구조와 유신체제 일반에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는 앞으로 탄생할 제5공화국의 성격에 크게 달려 있지만 그러나 일단 5.16 「쿠데타」에서 시작하여 유신까지 20년에 달하는 한 시대의 전환점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치권력에 시달리고 배신 당해온 민중의 숙명론적 체념을 다소 적극화한 것이 樣不十年·花無十日紅 같은 말이라면, 그 경계를 무색케하는 20년의 한 시대를 정리하는 작업은 간단할 수 없고 그 엄격한 역사적 평가는 앞으로 오랫동안 행해 질 수 밖에 없다. 한 시대의 청산이 쉽지 않다는데 그같은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우선 뭔가 정리를 해 본다는 뜻에서 만화를 여기에 골라 보았다. 만화가 소위 대중 문화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재삼 강조 하기 위해 앞서, 언론규제가 심했던 암흑사회, 따라서 유언비어가 관을 치는 농토일수록, 만화가 시시비비, 비판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의의도 있다. 그러나 조간, 석간 신문을 뒤적이며 만화에서라도 시원한(?) 일침을 기대했던 상황은 또한 만화를 다소 지나치게 1차원적인 정치비판, 일률적인 발상법에 머무르게 했다는 기본도 든다.

한, 두달 몇사람이 토요일 오후를 EAST ASIA LIBRARY 에서 보내면서 꽤 애를 쓴 셈이지만 제약상 「고바우」 「두꺼비」 「야모씨」 같은 신문만화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지면에 「고바우」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고바우」가 50년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아온 공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얘기한 신문만화의 한계성에 비추어 보면 그 발상이 좀 지루하고, 「고바우」가 예로 「두꺼비」나 「왈순아기」보다 뒤떨어진 사고방식으로 시대를 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예로 「고바우」가 보는 시각만큼 우리가 "순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 는 비평은 「뿌리깊은 나무」잡지의 만화평을 참조)

1. 4·19 전후



(1960)



(1960) - 7 -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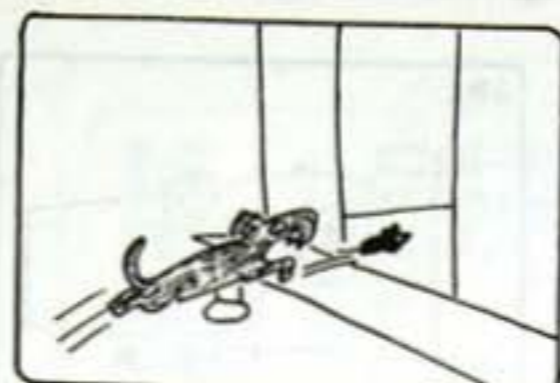


(1961)

2. 5·16 과 민정복귀



1961년 5월 16일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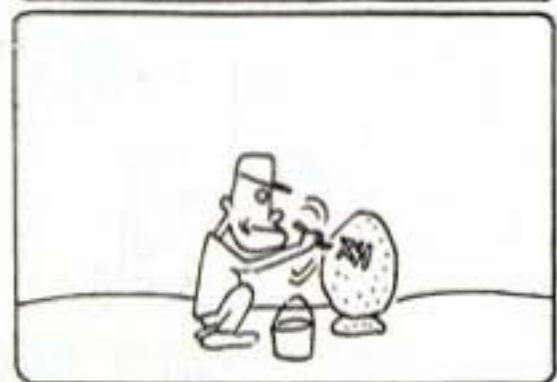


(1963)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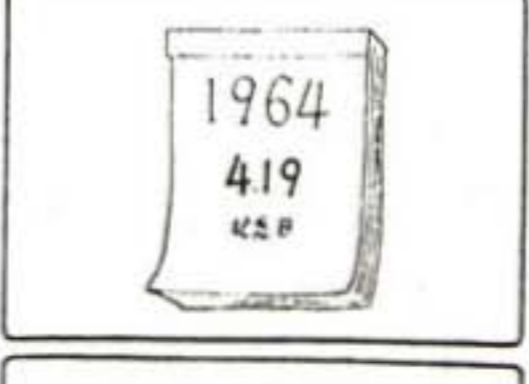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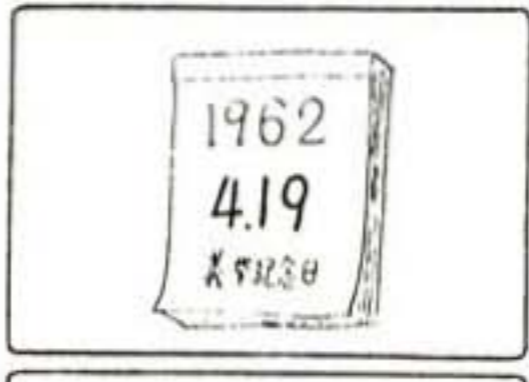
3. 제 3 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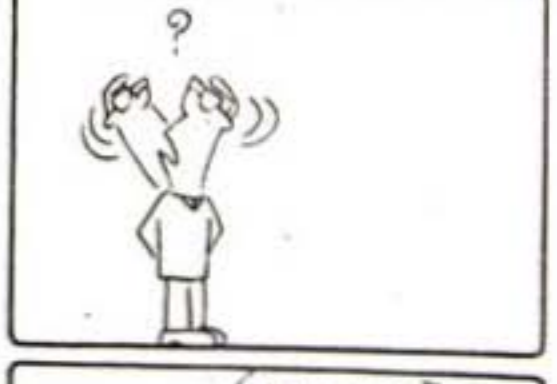
(1964)



(1965)



(1967)



(1967)

4. 학생 테모



(1964)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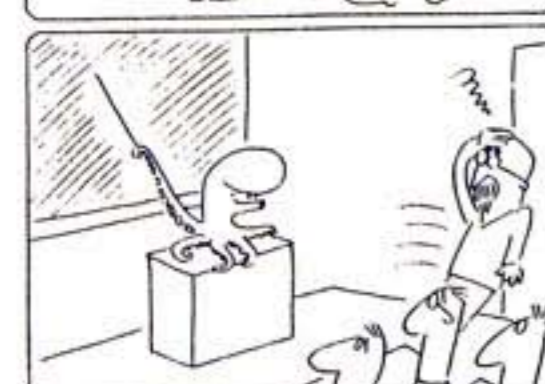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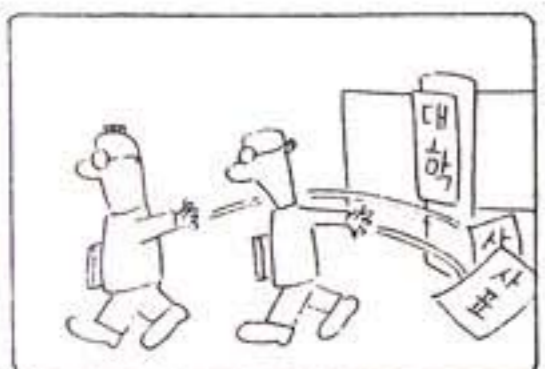


(1965)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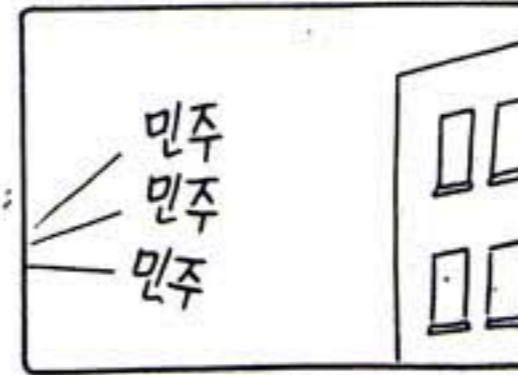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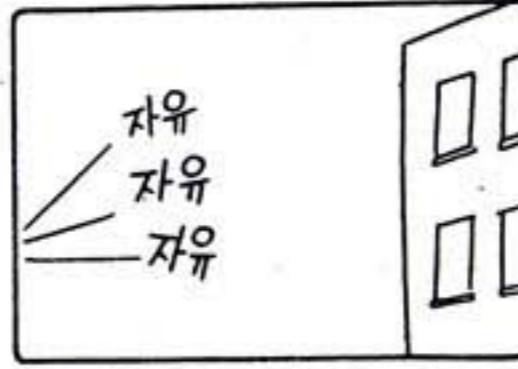
5. 통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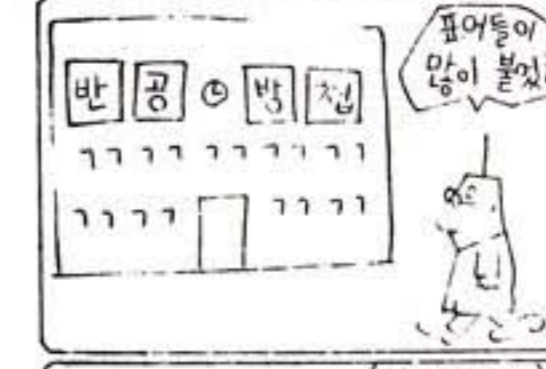
(1967)



(1964)



(1973)



(1964)

6. 부패 · 불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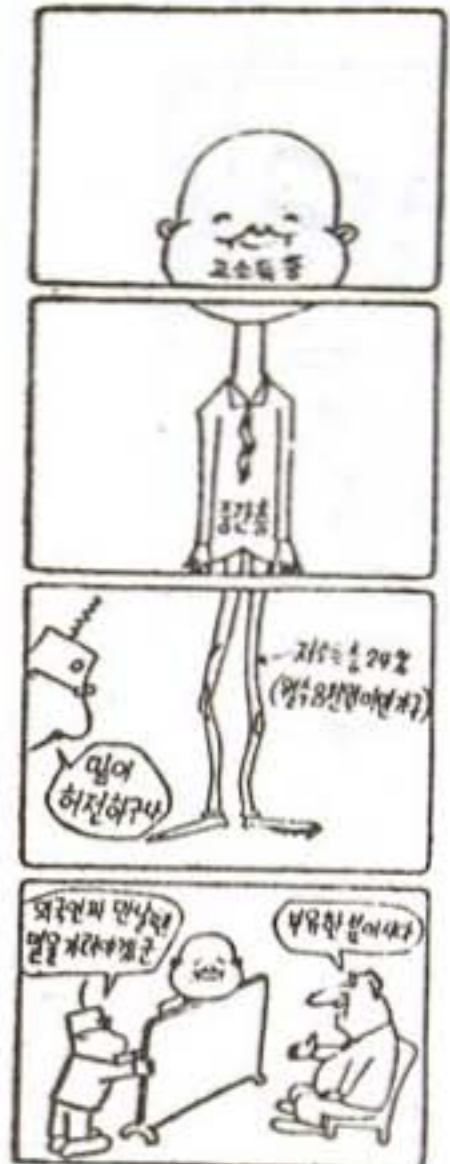
(1966)



(1970)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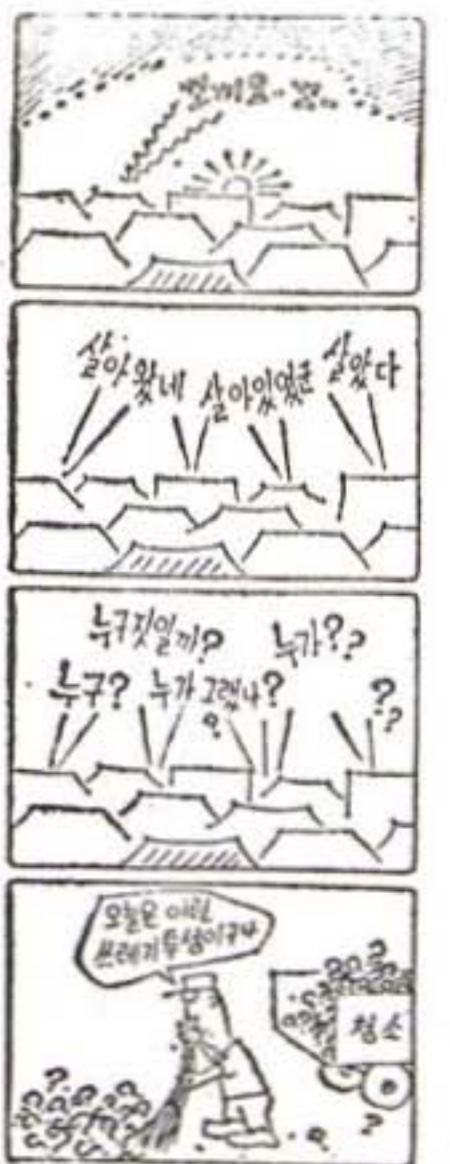
(1973)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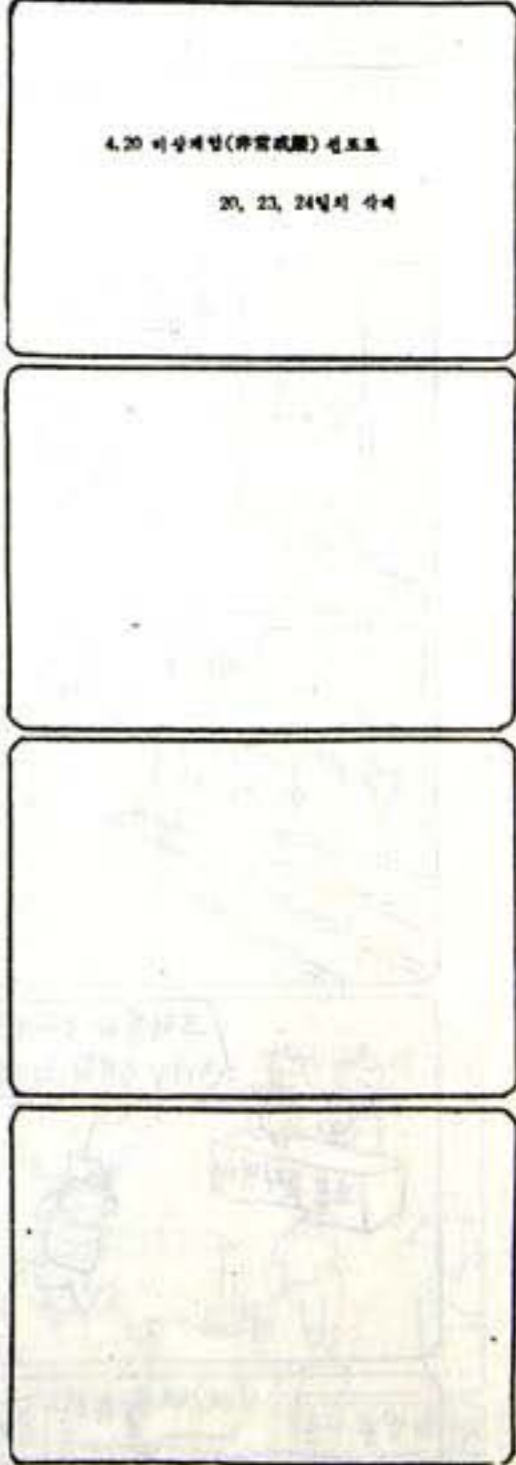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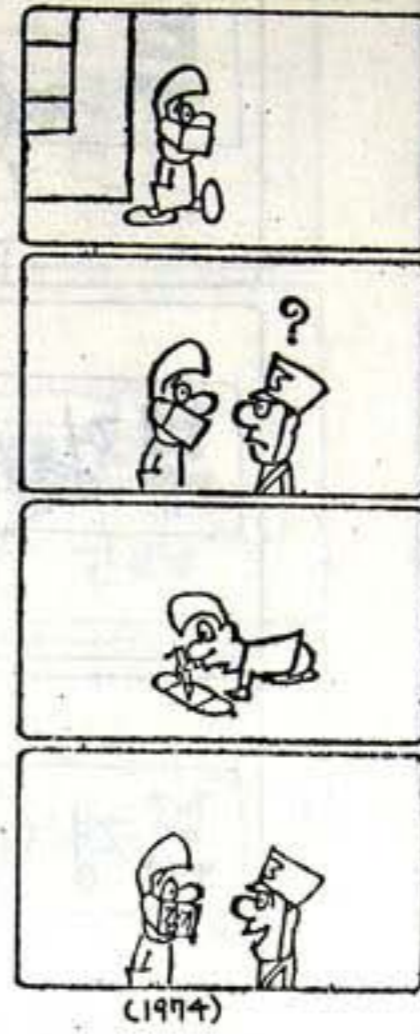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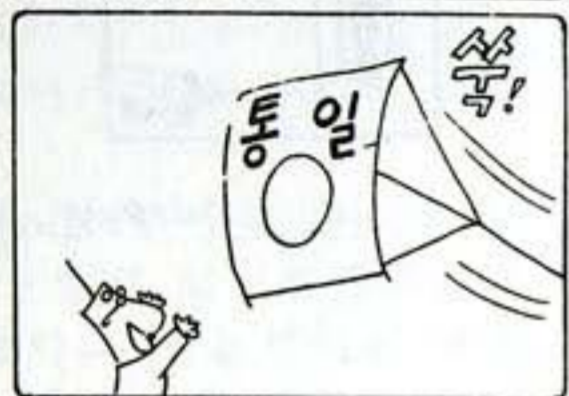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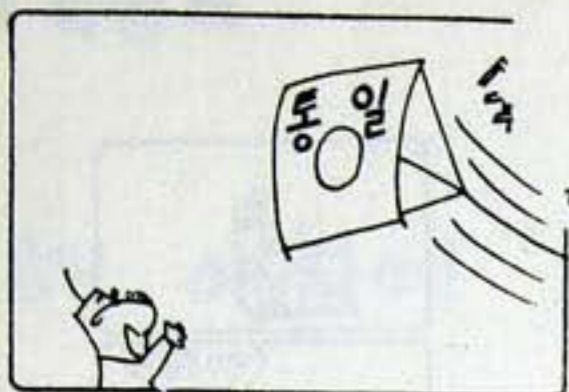


(1973)

7. 유신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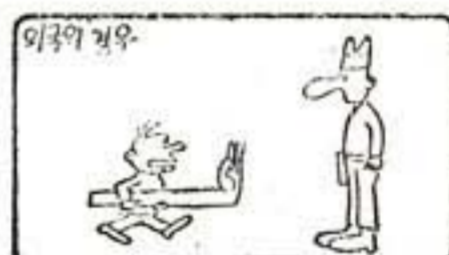
8. 남북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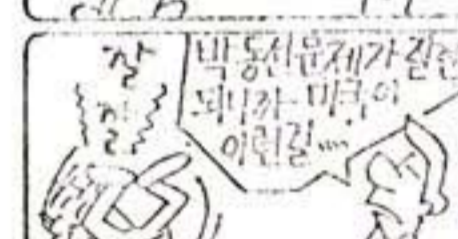
(1972)



(1974)



(1977)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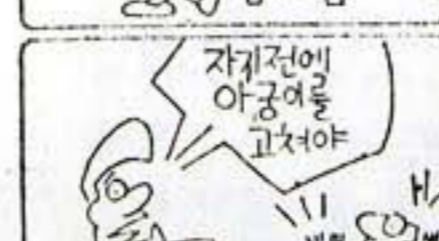
9. 미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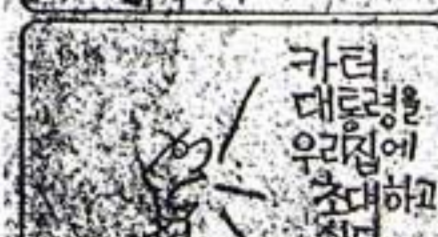
(1974)



(1978)



(1978)



(1978)

10. 유산



(1979)



(1979)



(1979)



(1979. 11)

김종오·신정숙·김학수·최재원

세금과 그들의 노력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았던 것인데, 결국 잘난 것이 모두 제맛이라고 믿을 때 한국 돌아가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제 잘못으로 학생들 굴탕먹는 것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의 우둔함으로 몰아부칠 위험성이 보다 크게 존재하고 있다면. 많은 학생의 인생이 그렇게 조저질 때의 스승—그들의 귀족의식이나 지배의식은 권력 재산은 물론 지식까지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간격을 영속화(永續化)시키고, 그리고 정치의 독재자, 학계의 독재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저가의 상인도, 가난한 농부도, 계각기 제분야 찾아서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동료도,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으며, 아니 나와 똑같은 길량으로 오늘을 사는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만이 아메에서부터 만들어진 위의 존재의의가 가능하고 나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며, 신념(信念)이 독선(獨善)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80년대에는 독력에 의해 유지되던 어제의 정치역사가 유행따라 사라지는 "그때 그 사람(?)"의 노랫가락으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배파각인 학벌과 어처구니없는 지역적 편견에 의해 유지되던 어제의 사회상(社會相)과는 달리, 학문적 노력이 아니라 권위와 파벌에 의해 유지되던 어제의 학자상과는 달리, 오늘 내가 자리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간대인간을 똑같은 무게에 두고서 그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너가 년들머리 난다고 외치는 지식교육도 바로 우리 모두가 갖고있는 이러한 정신동토, 즉 귀족의식이나 지배의식에서 연유되지않았나 싶어, 그냥 두서 없는 풀필(擧筆)을 한번 들어 보았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이곳 시아들에는 여전히 썩없이 비가 내린단다. 그래도 오늘만은 모든 것 덮어두고 풀머가는 시간속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싶었었다. 부기 한창 성장기에 있는 너의 학생들만은 귀족의식이나 지배의식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의 그릇으로 전락되지않기를 기원한다. 물론 나자신과 너자신부터 껌질을 벗겨 버려야될 것 같고, 그러면 끝으로 금년에도 다복하게 살아다오.

빛물이 창력을 떠리는 시아들의 어느굴방에서 친구가

1980. 1. 1. 정오.

(대학원 - 심원방송학과 전공)

새해 아침에 쓰다 보니

◀ 김 학 수 ▶

꼭 일년여만에 너에게 편지(便紙)를 쓰는 것 같구나. 그래 부인도 안녕하시고 딸네미 무럭무럭 가라고, 그리고 참 잊진 네 편지에 의하면 아들이나 들경 놓았다고 하더니 그놈 남양분유(?)먹기 바쁘겠구나. 모두,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고 다복하기 바란다.

이름도 한해를 맞았다고해서 별다른 변화였을 것 같다. 한없이 늙어야 되고, 끊임없이 쓰야 되며, 그리고 출장 타이프 두들겨대는 생활,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것 같다. 곳이 하나의 변화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홀모 주막(酒幕) 찾아가는 버릇을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다. 밀려오는 피로를 못이겨 찾아가던 주막(酒幕)도 오늘부터 변화하기로 되어있으니까. 한 순간의 행복도 놓칠까 아쉬워하는 40대를 전후한 여인, 가슴 속라인 옷을 걸터이며 열심히 각태일 만들어주던 그 여인이 대망(大望)의 80년대에는 입학전금을 노리며 바다 먹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 알라스카로 뜬다나, 그러니 판타시 그림 몇점 덩거렁 걸려있고 반기는 이 하나없는 곳에 갈맛이 날리 만무하기.

내가 이런 이야기할 때 무슨 기막힌 데서 한잔 하는 줄 알고, 너가 무척 오해할 지 모르겠다. 변명이랄 것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 변두리에서 간단히 한잔하는 돈이나 이곳 정범한 곳에서 한잔하는 돈이나 마찬가지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무고동 굶죽 어엿한 곳에 가서 한잔하는 돈가지고는 아마 일년은 먹울 수 있을 거다. 어쨌든 가나다란 고등학교 선생 월급가지고, 오즈음도 무척 바쁘겠구나. 그 옛날 우리 술안간 기울일 때면 너가 항상 강조했었지, "죽가사가 지식 먹여주는 교육에 년들머리 난다구." 그래 오늘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싶다. 한국사(韓國史)의 한 페이지를 다듬길 재버린 지난 한해의 사건들도 결국 그런것에서 연유(緣由)되지않았는가 싶어서 말이다.

지식인(知識人)이라 자처하고 독은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너나 나도 그런 무리속으로 격상되는 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식인(知識人)과 지성인(知性人)의 차이에 대한 현학적(衞學的)인 논쟁은 논외로 하자. 독은 우리가 엘리트 의식(貴族意識)이라는 말도 가끔 강요받는다. 어마는 지식인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존재도 독은 마치 민중의 동불

인양 떠받들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지식인의 생태(生態)라는 대개 모두 천재(天才)임을 과시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만들어진 지도자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아니 위에서 아래를 삼키려는 지도자이니라.

여컨데 한국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귀족의식(貴族意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세상살이를 갈 체험했던 식민지시대의 귀족은 일찍 교육(敎育)에 논할 수 있었고, 그들의 후손(後孫)들 역시 갈 무장된 교육으로 정치적 와중(渦中)을 고모이 빠져나가면서 지배자(支配者)로 군림할수 있었던 시대의 흐름, 곧 귀족의식, 기백의식은 오늘날의 엘리트 의식이니 지식인, 지성인이니 하는 감칠 맛 나는 언어도 바뀌어져 있을 뿐 아직도 깊숙이 살아있다.

소위 학자들의 슬픈 사연이 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일찍 개명된 눈물 갖고 외국에서 학위받은 뒤, 소위 금의권양하면 최소가치 하나만으로도 지식인의 범주에 끼이기에 흥분하고, 그리고 나서 소신 없는 정치놀음에 들락거리다가 출구막에 제자따라 다니면서 양면 즐기는 슬픈 사연들 말이다. 아긴 10여년간 덜어둔 책과 연구가 더욱 정치적 감난에 휘말리게 만드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자기만이 최고라고 여겼던 지식마저 사라진 이상, 파벌(派閥)만든 뒤 그 입을 배경으로 다고내의 세계는 물론 학교 외의 세계를 살아갈 때만이 그가 기대하고 있는 생존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결국 자기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독선(獨善)은 귀족의식(貴族意識)이나 기백의식(支配意識)으로 변질되고, 저 멀리 내던져버린 책과 연구는 그 밑에서 배우는 수많은 학생들을 울림 받으며, 그기에다가 우선 장고 봐야 된다는 생각에 주변거리없이 댕어든 소신없는 정치놀음이 결국 국민들만 비틀리게 하지않을 수가 없다.

나만이 최고이고, 나만이 국민을 가난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나만이 십자가를 짊 수 있다는 독선은 결코 신념이 아니다. 그런 것이 결국 정치적 사퇴적으로 한국을 톰먹어 들어갔는 기도 모른다. 이곳에도 소주가 없어서 그렇지 보신탄(Man Bites Dog) 집과 학사주점(College Inn Pub)이 있단다. 그곳들에서 간간히 나누어본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이곳에 와 있는 유학생사되도 엇비슷함을 느낄 때가 있다. 지식 좀 남보다 더 습득했던 탓으로 유학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 심부(心部)에는 아직도 나만이 천재이다라는 독선이 도사리고 있으며, 제 갈나서 공부하는 줄 안다. 부모정제를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의 뒷비타기가 있었고, 크게보아 국민 전체의

(알 페이지로 계속)

5000 Years of Korean Art

(a personal appreciation)

◀ Mr. Tom Kasa ▶

Korea, by virtue of her geo-physico-political orientation vis-a-vis her two closest neighbors, has traditionally been assigned the role of bridge for the transmission of the venerable culture of "big brother" China to her sometime pupil, sometime master Japan -- a role played dutifully if not always happily by Korea over a period of nearly 2,000 years. By the same token, and the same over simplistic interpretation of the obvious relationship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Korea was also cast by western observers as the slavish inheritor and conservator of Chinese culture, customs and traditions--a view which persisted almost intact until well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Although traditional Korean history begins with the birth of Tan'gun, the mythological founder of Choson, in 2333 B.C., the first recorded history to mention the country of Korea does so in connection with China's invasion and occupation of the northern territory of Choson ca. 200 B.C., thus initiating a long history of cultural and political exchange which continues up to the present day.

Recently, while touring the largest exhibition of Korean art ever seen outside Korea, currently on view at the Seattle Art Museum, I found myself taking note not so much of the often cited and well documented instances of transmission or cross-migration of form, style and content in the art of the three countries, but more of those pieces which seemed to me to reflect features, styles or themes most persistently and fundamentally Korean in their expression. Some of these are mentioned in the paragraphs which follow.

Certainly **one** of the most forcefully Korean pieces of the entire show is the "Crown with Pendants" (Plate no. 12), **fashioned** from sheet-gold and jade and ascribed to the Old Silla period, ca. 5th century A.D. Unearthed in 1974 from the North mound of the royal tomb at Hwangnam, Kyongju in

in Kyongsang Pukto, according to catalog information, its **design** displays shamanistic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found in the northern continent, i.e. from the same Siberian/Tungusic area now favored by linguists as the probable proto-source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It is the largest and most ornate of the five gold crowns discovered in the Kyongju area. It is, moreover, a crown-type not found in China; it is uniquely Korean.

One of the exhibit's most popular show-pieces, the "Vessel in Shape of Warrior on Horseback" (Plate no. 45), also dates to Old Silla and comes from Kyongju's Golden Bell Tomb, where it was excavated in 1924. Although comparable continental vessels are to be found, here it is the strongly humorous handling of the faces of both horse and rider, cited in the catalog as one of the "basic traits of the Korean artistic approach", which marks it as a uniquely Korean production.

Moving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the early 7th century A.D., a large "Seated Maitreya" in meditation (Plate no. 76), worked in gilt bronze, is significant in several ways: not only does it exemplify and provide excellent documentation for the passage of the rounded, naturalistic sculpture of China's Northern Ch'i dynasty style of the mid-6th century to Korea, it is credited by scholars as one of the finest Buddhist sculptures in East Asia; and finally, it exercised strong stylistic influence on Buddhist sculpture in Japan during this period -- most notably in Chuguji Nunnery at Nara and in the famous "Kudara Kwannon" at Horyuji and in a wide variety of seated and standing figures, large and small, carved in wood or cast in metal, but most of all possessing readily discernabl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a well-defined Korean-Paekje type.

The Koryo period (918-1392) produced several widely divergent works expressive of continually evolving, distinctively Korean characteristics: the 10th century cast-iron "Head of a Buddha" from the National Museum (Plate no. 104), while acknowledging obviously Chinese traits in style and form is marked indelibly as Korean by its sweetly smiling, human countenance and by the sculptor's introduction of identifiable Korean ethnic feature in the handling of cheeks, eyes and mouth; the

■ 초머글 ■

Hahoe village "Masks of Yangban and Pune" (Plates no. 161-2), as well as the other nine characters of the eleven basic character types included in the Hahoe carved wooden mask genre, show skilled use of Korean comedic, naturalistic traits used to advantage in satirical plays aimed at embarrassing nobility, scholars, monks or others of the privileged class to the advantage of the common man -- a style of drama possibly anticipating or influencing, but certainly paralleling similar developments in the Noh Kyogen plays of Japan; and, finally, the naturalistic evolution of style and handling exemplified by a progressive look at the work of Kim Tuk-sin (1754-1822), plate 245; Sin Yun-Bok (born 1758 A.D.), plates 230 b, c and d; Pyon, Sang-byok (18th century), plate 197; progression from traditional court painterly/literati styles to distinctively individual Korean genre styles depicting the joys and trials of the everyday Korean life of their respective generations.

My own initial appreciation and study -- if such it can be called-- of Korean art began falteringly in the mid-30's, in tandem with my beginning study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My "bible" for this purpose was Andreas Eckhardt's landmark work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published in English translation in 1929 --then, and until the mid-50's, virtually the only work of any scope dealing at any depth with the subject of Korean art. Returning to the University after WWII, I discovered with considerable pleasure that the Japanese language could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badgering information from prisoners of war, reconstructing tables of organization and the other requisites of military intelligence work. I read most of the major publications of Japanese archeologists and art historians available in the then-Far Eastern Library, updating my coverage of existing publications on Korean art to about the year 1949, meanwhile beginning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The works of Korean archeological and art history researchers, who were formerly relegated to subordinate positions under the Japanese, gradually began to appear in the late 50's and throughout the 1960's, until the field is blessed with the fruit of the labors and scholarship of both older and new generations of Korean art scholars. Although some few, as well as occasional articles, have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it is

frustrating to discover that my Korean has slipped to the point that I can no longer easily read in such technical fields, and I have purchased some of the recent key titles and added them to my "retirement reading" backlog, together with the determination to brush up my Korean language once more. The present exhibit has amply demonstrated that this effort will be more than worthwhile.

The first entry in the exhibition catalog --an earthenware "Jar" (Plate no.1)-- dates from the "combed ceramic" culture of ca. 3,000 B.C. This, although followed by a gap of some 2,400 years before the second entry dated 600-300 B.C., apparently justifies the "5,000 year" span expressed in the exhibition title. And given the ever-increasing pace of archeological exploration, art history research and publication by Korean and western scholars in recent years--most especially the 1954 discovery of the Sokchang-ni site in South Ch'ungch'ong province which carbon-dates to the year 29,000 B.C.-- the world may ultimately anticipate at some future date an exhibition proudly entitled: "30,000 Years of Korean Art".



No. 135
Maebyeong, intact celadon
Koryŏ Dynasty
12th century

No. 173
Covered jar, blue and white porcelain
Yi Dynasty
15th century

인간의 승리를 위해

◀ 김 상태 ▶

사실은 한국 사람처럼 '레이시스트'도 드문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그런 편견을 받으면 참으로 무섭게 좌를 낸다.

연전에 '피어플 타임스'의 '리 앤더슨'인가 한 친구가 한국사람을 "동양의 감동"이라고 칭찬했다고 해서(그것도 한국어인의 인용이라든가) 한동안 껴이나 시끄러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나 자신도 그때 그 말에 고개기분이 상했지만, 돌이켜 생각한다면 우리를 감동이라고 빗대었다고 해서 좌를 낸다면 흑인들은 우리 옆배짱 좌를 내어야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레이시스트'적인 반응이라기보다 "어원 말실음 같 탐다"는 데 그 정국(正鵠)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우리 한국인이 '로케이션'처럼 세계를 움직여 가는 주류세력이었다면 아마도 눈도 돌깃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한국이라는 비교적 좁은 국토, 단일한 민족권에서 온 우리동포들이 이 넓고 다양한 민족권이 어울려 사는 미주에서 어떤 철학으로 사느냐가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리고 문화가 미개할수록 (문화란 말이 요즘에 와서 꼬여나 정의하기 어려워 곤란하긴 하다) '레이시즘'은 지독하다. 그 극단적인 예가 식인종일지도 모르겠다.

자기 민족이 아닌 종족은, 특히 '로케이션'은 말랑 말랑한 먹기 좋은 고기쯤으로 생각했으니 말이다. 징기스칸이 서방세계를 쳐들어 갔을 때에 김명한 성(城)의 사람들은 아이 광그리 죽어버렸다는 것은 유명하다. 나피들이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한 것도 레이시즘의 일종이고 보면 현대도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계는 종족적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아니, 적어도 바꾸지 않으면 세기평화가 유지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배한 것은 베트남인을 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반드시 패배한 것은 아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오히려 승리한 것인기 노른다. 종족과 국가에 대하여 인간이 승리한 것이다

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겠지만, 모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국이 불러 일으키는 환기력(喚起力)은 대단하다. 서두에서 말한 '에피소오 드오 바로' 그런 연유에서 흔히 모르겠다. 모국의 독재자를 서양인이 욕을 하면 듣기가 매우 거북하다는 고백도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켓 같다. 도둑놈을 동조라고 해서, 장애를 한국인이라고 해서 감사줄 시키는 기났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상들이 기린 자랑스러운 문화의 외면해 버림으로서 당당한 미국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곤란하지만, 보편적인 인류, 곧 뉴매니즘에 입각하지 않은 소비니스트(chauvinist)도 참으로 처지 곤란인지 모르겠다.

인간의 승리, 그것이말로 곧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인 것이다. 그 평화속에서 각 국가가 혹은 각 민족이 다양한 문화로 꽃피워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이념이기도 하다. 슬한 장애가 가모 놓여 있긴 하지만..

(전북대학교수, 비교문화, 박사과정)

1972년도 IAEA의 통계에 따르면 인류가 한 해에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1.03Q로 보고 되었다. 여기서 Q값의 학술적인 정의를 주기 보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훨씬 감을 빨리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예를 들어 보건데 가령 3Q의 에너지를 가해서 오대노를 끓일 경우 오대노는 순식간에 죽음의 사망이 되어 버린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에너지의 소비율도 지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현재에는 1.22Q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율을 보이고 있다. 역시 같은 통계를 재 인용하면 전 세계 에너지 자원의 추정 매장량은 다음과 같이 윤곽지워진다.

종류	수정 매장량
석탄	80~90 Q
석유	40 Q
우라늄	7 Q
천연가스	13 Q

(to page 18)

에너지의 문제는 플립 것인가?

◀ 최 원 호 ▶

1939년 8월2일의 날짜로 된 Albert Einstein 의 편지가 Roosevelt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진 것이 핵 공학사에 뚜렷이 포함될 만한 것은 아니지만, 핵공학의 어명기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큰 발자국이였다.

"각하:

최근 Fermi 와 Szilard가 이룬 연구 성과는 조만 간에 우라늄 원소가 획기적이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 해 줍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낸 편지의 내용은 독일이 우라늄의 대외 수출을 중지 했다는 사실과 이에 대비해서 미국도 핵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다. 불행히도 상상 무기의 개발을 위해 시작된 핵의 연구는 히로시마에 1.5Kg 의 원시적 출루토늄 원폭을 투하케 했고 오늘날에는 핵무기의 개발이 상상할 불어할 정도로 고도화되어 인류는 스스로 핵의 함정을 깊이 깊이 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기밀스런 이야기도 필수 있고 해서 핵무기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 접어두지만, 만약에 한국이 핵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아마 1945년 당시에 사용되었던 정도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쨌든 차나뉘어서 가혹한 저주를 하셨는지 Three Mile Island 의 시끄러운 잡음과 함께 인류는 그 짜증스러운 에너지 위기의 와중 속에서도 핵에 관한 걸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 글을 씀에 있어서 앞으로의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코저 한다. 서둘러서 걸론을 내린다면 에너지의 문제는 1980년대에는 뚜렷한 건판점이 와야하고 1990년대에 가서는 단일화 된 영구 에너지원을 찾아 그기에 인류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져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야기되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혼란은 여기서 따모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위기라는 말 대신에 에너지 문제라는 말을 더 쓰고 싶은 이유는 내 개인적인 견해도 비추어 볼때, 이것은 과히 비관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며 나름대로의 뚜렷한 방향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본물에 진입하기에 앞서 오늘날의 에너지 현황을 간략하게 논의 해 보기도 하자.

(to page 17)

(from page 17)

여기에 보인 통계는 모두가 용매장량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서 경제성이 없는 것을 제외한 가치 매장량만을 따진다면 실기의 가용성 가원은 60% 가량으로 떨어져 버린다. 기대치 않던 새로운 판광이나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도 없기는 않으나, 그것도 전체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크게 기여를 하기 못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각 기관마다 다소의 다른 통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에너지의 한정성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래도 여러가지의 변조 개념(Alternate Energy Concept) 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불행중 다행이랴? 그중에서도 가장 관상적인 것이 있다면 태양열 에너지의 개념인데 현재로서는 건력단가가 엄청나게 오원한 실정에 있는 형편이며 비능동적인 소규모 가정단위의 실험이 시도되고 있으나 실제 발전소(plant) 단위의 태양열 발전기(Solar generator) 를 설치하자면 3x3 평방마일 정도의 면적에 비싼 반도체를 깔아야 하며 이것은 즉 construction cost 의 이가만 하더라도 천거 건력 생산 단가의 수십배를 능가한다는 말이어서 산업혁명과 같은 획기적인 반도체 기술의 건판점이 없이는 2000년에도 비당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라늄의 건력생산 단가도 그리 싼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건력생산단가를 비교해 보면 화력발전이 와트당 35 원 이었고 원자력이 12원이었는데 그 무모 우라늄 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결국은 화력과 경쟁하는 기경에 이르렀지만 그때도 아직은 핵발전이 판 경편에 있다. 우리나라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은 순도 0.72%의 국제적인 평균치에 미달되고 있어 아직은 경제성이 없으나 장래 우라늄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띄게 될 것이다. 어쨌든 건 세계적 우라늄의 매장량도 통계에서 보인 바와같이, 극미한량이 되어 있어 핵발전의 나관성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고 더더구나 미국의 경우엔 안정장치(Safety system) 에 너무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핵 발전의 미래는 그렇게 밝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러면 그 적절안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핵공학의 기본원리를 잠시 더듬어 보기도 하자.

핵공학의 기본 원리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대략 90%도 농축된 우라늄을 1.6 Kg 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핵폭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 1.6 Kg 의 수치가 90%에 대한 임계질량이라는 것인데, 신비한 것은 어떤 우라늄의 동치가 1.6 Kg 이상만 되면, 그 내부의 열중성자가 증가가 되어 핵폭이 되고 반대의 경우엔 중성자의 인구가 감소되어 점화(Ignition)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핵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1.6 kg 의

우라늄 구(sphere)를 반으로 분리해서 두 개의 반구(hemi-sphere)를 만든다음 이것들을 서로 일정한 거리로 띄어 두었다가 자동 조절 장치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합쳐 지게끔 하면 순간적으로 임계 상태에 도달해서 버섯구름을 내게 된다. 즉 합쳐지기 전까지는 각각 0.8 kg의 미임계(subcritical)이었던 것이 합쳐진 후에는 그 총체(assembly)가 1.6 kg 임계 질량(critical mass)를 갖게 됨에 따라 폭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것을 폭발시키지 않고 여타의 제어해서 평화적으로 핵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1940년대 전후 핵 과학자들의 꿈이었다.

1942년 12월 2일 정확히 오후 3시 25분 인류 최초의 제어연쇄반응이 Fermi 들 비롯한 몇몇 연구진에 의해 시카고 대학 고정 West stands 아래서 조용히 관측되고 있었다. 19분간의 짧은 원시적 실험이었지만, 이것은 불과 10년도 안되어 원자모를 상용화 시켰고, 핵공학의 눈부신 발전은 오늘날의 에너지 문제에 그래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때 그 연구 작업으로 인해 속중성자살에 신체마 자주 노출되어 결국 원자병으로 죽어간 Fermi 박사의 정신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최초로 처음에는 그러했어야 했지만, 잠시 숙연해 질 수 밖에 없다. 흔히 이공계 학생중에 특히 핵공학을 하는 학생들 중에 자신의 전공이 진짜로 academic 한 냄새가 나는 것이라 해서 조잡한 가만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들에게 Fermi 박사나 Slotin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다. 다소 주제와 빗나간 이야기로 Slotin 박사는 그리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은 아니지만 이 분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아파고개를 숙일 것이다. 1946년 Los Alamos 국립연구소에서는 핵에너지의 연구가 한창이었는데 그때 Louis Slotin 은 자신이 다루고 있던 핵물질이 순간적으로 임계상태에 도달한 것을 알고는 주위의 연구진들을 즉시 대피시키고, 스스로 그 assembly 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한다. 분해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자신이 치명적인 방사선을 받았다는 것을 안 그는 즉시 병원에 이송되자 우선 자신의 몸을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그러니까 오늘날의 Radiology)를 위해 싸 달라고 바쳤다. 며칠 후에 그는 죽었지만 직업에 있어서의 윤의의식 그것은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 누구에게나 걸맞은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진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태까지 기술한 핵의 원리는 모두가 핵 분열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일반적으로 핵반응에는 크게 두가지의 형태가 있되, 하나는 핵분열이라 일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융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전자는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핵종을 섞류알 처럼 뭉수려 뜨려 그 속에 중성자 알갱이들을

떨어 내는 것이고 후자는 수소의 동위 원소처럼 가벼운 핵종을 엮기도 합쳐서 중성자를 뿜겨내는 것이다. 이 중성자들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는 이유는 중성자들이 모체에서 이탈할 때 1~3천억도 (~Mev)의 격렬한 에너지를 띄우고 나오기 때문이다. 공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열화(thermalize)시켜서 실생활에 효율적으로 이용 할수 있게끔 연구하고 있다. 어쨌든 열의 이용 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점은 많이 있으나 핵분열(fission)과 핵융합(fusion)의 기본적인 반응 메카니즘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두개의 반응을 하나하나 비교 해 보기도 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핵분열은 무거운 핵종을 뭉수려 뜨려야 하기 때문에 핵 뭉수러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것들이 오름으로써 우리가 흔히 일컫는 Hanford의 핵폐기물들이다. 그러나 핵융합의 경우 단지 부산물도 생성되는 것은 헬륨이라는 안정된 원소 밖에 없는데 이것은 화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핵적으로도 안정된 원소이며 핵 폐기물이 없는 관계로 해서 Hanford의 맛썩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 두번째로 핵융합의 경우 임계질량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핵연료가 용해(melt down)되어 China Syndrome 으로 유도된다거나 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외에도 이러가지 것점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닷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중수소 만 추출해서 퍼도 전 세계 인류가 1억년을 쓸 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terror 의 위험성이 전혀없다는 것이다. 우라늄을 쪼는 핵분열(fission)의 경우 전술한 바와같이 1.6kg 만 도난 당 하면 전 세계가 법칙을 떨어야 하는 관계로 미국의 경우 안전 감시(safety guard)의 문제는 이미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이것이 대중적으로 상용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심한 마찰을 불러 일으킬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단위 질량당의 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하면 핵융합의 경우 핵분열의 1000배 가량이 되어 경제적인 면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우라늄은 그 노른가위인 U²³⁵ 와 불필요한 U²³⁸ 의 질량이 각각 235 대 238로 질량비가 거의 1에 가까우나 핵융합의 연료인 수소의 경우 질량비가 2배이다. 따라서 중수소(H² 혹은 D²)를 추출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U²³⁵ 를 U²³⁸ 에서 추출해 내는 것은 도마지 소부리에서 인삼을 골라 내는 것처럼 쉽지 않다.



핵 분열과 핵융합의 비교

	핵 분열	핵 융합
현재의 상용 원자로	100 %	0 %
연료	우라늄(한정)	중수소(무한정)
임계질량	있음	없음
핵폐기물	있음	없음
안전감시	필요함	필요 없음
에너지 효율의 비	1	1000

Tennessee 주 Oak Ridge 에 있는 동위원소 분리공장은 U자 형태의 건물인데 전장이 자그만치 입마입이며 폭이 400 피트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우라늄 농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 공장내의 K-25 에는 2500개의 방이 있어 우라늄 기체를 한쪽 끝에서 feeding 해 주게 되며 그러면 결국 조금은 가벼운 U²³⁵ 가 다소 쉽게 diffuse 되기 때문에 다른 한쪽 끝에서 나온 기체의 U²³⁵ 농도는 조금 높아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을 이용해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용이하지 못한 고로 몇 선진국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 한 일이다. 그러나 India 가 이미 오래전에 centrifugal separation method 라는 것을 개발해서 모즈음은 웬만한 중진국들도 의도만 있다면 핵무기를 소유 할 수 있는 사정에 있다. 어쨌든 우라늄의 농축은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중수소의 추출은 화학실험실에서도 누구나 쉽게 해 낼 수 있는 점이 있어 nuclear fuel economy 는 다소 낡은 의미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고 값이 싸며 연료 가공이 쉬운 핵융합노 (fusion reactor)가 왜 아직 등장하고 있지 못한가 하면 거기에는 아직 몇가지의 minor problem 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공의 원자로 TOKAMAK

핵융합 원자로를 만든다는 것은 기상에 하나의 작은 태양을 만든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태양의 에너지원은 자체내에 있으며 그 내부의 가벼운 핵종들이 고풍을 하여 헬륨으로 변해가는 핵반응을 통하여 태양이 에너지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대부분은 알고 있다.

어쨌든 그로 인해 태양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주위 공간에 공급하고 있고, 그 연료가 되는 수소동위원소들은 태양 자체의 중력에 의해 강하게 결속이 되고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의 거대한 핵융합 원자로라 하면 지나친

말일까? 상상 여기에서 analogy 를 얻은 과학자들은 지상에서도 이와같은 mechanism 을 구성할 수 없을 까하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그러나 1950년대의 과학자들이 우선 부딪친 문제는 대략 2 가지가 된다.

핵융합의 반응이 자발적으로 유기되기 위해서는 1억도 (4 Kev) 정도의 고온이 필요한데 이 정도의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물질이 완전히 이온화되어 물질의 제 4 상태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또다른 상태이며 이미 물질이 전자기적인 성질을 띄우기 때문에 고전적인 열물리의 개념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 더군다나 각각의 입자들은 광속에 비교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므로 상태론적인 취급이 불가피하며 오늘날에도 이물질의 상태를 완전하게 기술할 수 있는 이론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상의 많은 문제가 있는고로 1950년대 당시로서 핵융합 원자로는 그저 달콤한 꿈에 불과하였었다. 두번째로 이 정도의 온도에서 대부분의 입자들은 짧은 시간내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발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중에도 plasma physics 는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1950년대 후반에 개발된 MHD(magneto hydrodynamics) 이론을 plasma 의 성질을 부분적으로 파악 설명하였고 plasma 의 유체적인 특성을 통하여 이론의 간편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핵융합의 원리가 본격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급속히 발전되기 시작한것은 에너지 위기의 거센 바람이 불던 1960년도 후반 어느때 봄이었던것으로 생각되며, 실질적으로 핵융합의 분야는 이제 유아기의 상태에서 장년기로 순식간에 발전하고 있는셈이다. 미국 전역에 갑자기 수많은 실험용 대형 융합모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 몇년사이의 일이다. 최근에 들어서 이루어진 많은 실험 결과는 1950년대의 MHD 이론이 실제 공학적인 면에서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기서 공학적인 면이라함은 plasma 의 온도가 1억도 정도에 도달해서 핵융합 (fusion) 반응을 일으킬때의 양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고온에 도달하면 더군다나 입자의 충돌은 양자역학적인 면을 나타낸 뿐만 아니라 유체역학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turbulent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이론의 복잡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60년대에 적극적으로 개발된 two component theory, vlasov Model 등과 같은 이론도 MHD 의 약점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뿐 입자간의 충돌 현상은 감이 포함하기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1967년도 부터 plasma 의 유체적인 특성을 잊어버리고 그 내부에 있는 전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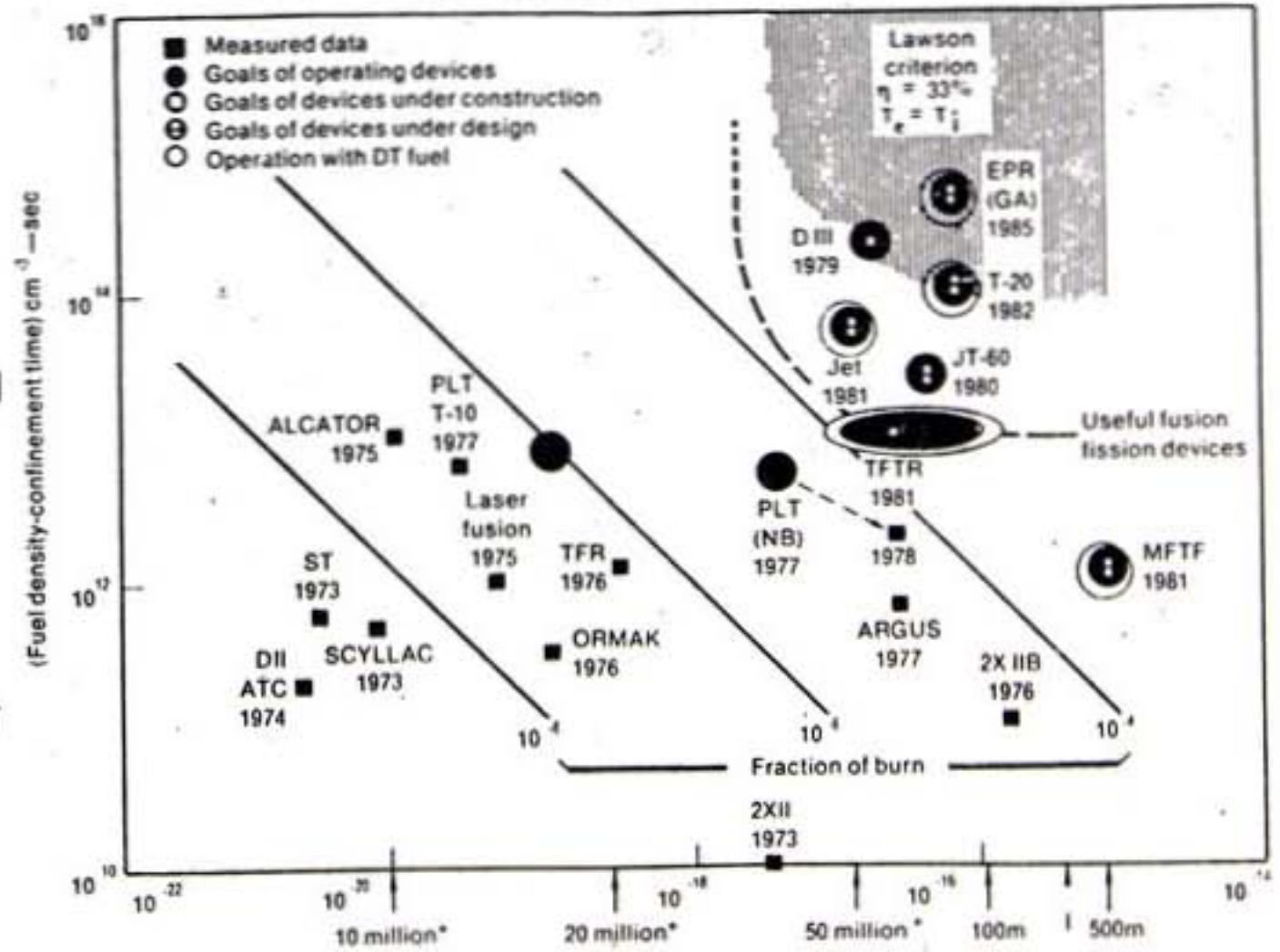
이온의 운동을 하나씩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추적해 가자는 *particle simulation* 이라는 매력적인 분야가 John Dawson 과 같은 *plasma physicist* 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는 Okubo, Boris 와 같은 특이 깊은 학자들간에 크게 선봉이 불고 있다. 필자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분야인데 이미 여러가지 재미있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 *particle simulation* 의 잇점은 실험에 있어서 측정하기 어려운 *parameter* 들을 쉽게 수치적으로 측정해 낼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실제 플라즈마 실험을 하지 않고서도 플라즈마의 운동을 그대로 흉내낼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실험비를 함부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충분한 *Numerical Simulation experiment* 를 통하여 신중이 고려된후에 *fission reactor* 를 건설한다면 그동안에 필요했던 값비싼 실험과정을 제거 될 수가 있다. 이것은 기극이 공학적인 착상이며 CRAY-1 과 같은 *super power* 의 컴퓨터가 개발됨에따라 이 분야의 개척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하나 흥미로운 것은 Fokker-Plank Theory 를 실제 *fusion plasma* 에 응용해 보려는 의도이다. 이것은 바로 입자간의 충돌과정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UCLA 비롯한 서부연안의 학교들중에 크게 인기가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또한 *plasma turbulence* 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근간에 부쩍 늘고 있으며 특히 태양이나 지구 상층권에 있는 *plasma* 를 통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우선은 길다. 현재 이남철 학명(U.W. 핵물리학과 박사과정)께서 이론적으로 이분야를 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재미있는 비고전적 유체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데 *plasma* 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것 같다. 너무 이론적인 소개만을 거듭한 것 같아 감시 실험상의 진전상태를 논의하고 결론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핵융합의 두가지 조건, 그러니까 1억도의 고온과 효율적인 *plasma* 구속(*confinement*)은 50년대에만 해도 보원한 문제였던 것이 1970년대 초반부터 획기적인 계 값과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계획상에 차질이 없는한 1972년에는 U.S.S.R. 의 T-20 기 65년엔 General Atomic 의 EPR 이 쉽게 공학상의 경제수치가 맞는 *Lawson criterion* 의 영역내에 진입게 된다. 그러니까 *plasma heating* 과 *confinement* 에 투입된 *input energy* 보다 생산되는 전력 에너지의 *output* 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이다.

어쨌든 최근들어 Princeton PLT 가 기대 이상의 진전속 보이게 되어 *fusion plasma engineering* 의 앞날을 훨씬 밝히 *Lawson criterion* 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상의 전문적인 논술은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결론을 논하기로 하자.

떠오르는 작은 태양

기상의 작은 태양을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 *plasma physicist* 들의 가장 큰 꿈이며 아니 꿈이라기 보다는 이미 현실적인 기다림이며 인류의 에너지 문제와 직결이 되고 있는 셈이어서 인류 평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나는 1975년도에 현재 지도고수인 F.W. Ribe 박사가(당시엔 Los Alamos 국립 연구소의 head of CTR 이었음) *fusion* 에 관해 쓴 *article* 을 읽고 *fusion* 의 아름다운 매력을 찾아 여기까지 오게 된 셈이다. 이제 바야흐로 80년대는 *fusion engineering* 의 시 막을 여는 시대이며 90년대의 상용화(*commercialization*)를 거쳐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수소를 연료로하는 소용화된 *fusion plant* 를 전력공급의 대용적 영구수단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인류의 유일한 영구에너지는 결국 이것밖에 없으며 이것은 인간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또하나의 위대한 과학적 예측이 될것이다. 떠오르는 기상의 작은 태양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기상의 작은 태양의 세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맺는다.



RESEARCH PROGRESS IN FUSION POWER

(핵공학 박사과정)

기다리는 기별

◀ 이 주 현 ▶
(이 선형씨 부인)

또 안개가 저물었다. 해마다 겪는 忘年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는 올해도 여전하지만 異國에서 맞은 忘年の 감상은 조금 다른 듯하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어깨가 부딪치도록 북감한 쇼핑센터는 온갖 유혹을 가아내는 마법의 상가만 같다. 거대한 문명이 주는 密窟에 휩쓸려 나도 그속에서 부딪키다 돌아오니 가련한 피에로가 된듯한 서글픔이 어려 해마다 가던 忘年소감보다 더욱 울적하다.

벌써 일년 반이나 된 이곳 생활이 주는 지도와 권태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해 하루빨리 이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나의 稚氣는 기린 표정으로 귀가하는 남편의 발걸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학생부인, 온갖 정열을 공부에만 쏟을수 있는 젊은 나이도 아닌 남편이 학생으로서 지칭되는것도 속수무련데 그기다 나카지 "학생부인으로써" 소감은 온하는것은 주저 남은 것이 아닐지 송구스럽다. 글씨여기를 늘어 놓을대야 따분하고 각각한 생글 뿐이고 남편에 대한 불만 뿐 일텐데 길은 생각없이 원고부락을 용락한 죄값으로 나의 노숙이 설령 내게 가혹한 일이 되더라도 눈 감을 수 밖에 없는 듯하다.

두른꿈만 간직할 수 있었던 캠퍼스 시절에는 유학생이라는 이 한마디 대명사가 얼마나 나를 유혹 했는지 모른다. 적어도 어떤 한 분야에서만은 거장이 되리라 확신하며 근엄하고 초연한 얼굴로 까운 가락을 필적이며 실험실을 드나드는 남자의 모습, 인생을 초탈한 듯, 가난하고 열벚어야 하는 갈다란 생활 같은것에 마음 두지 않고 책만 파고 들며 유유기 살아 갈수 있는 몇몇 교수들은 내게 있어서 확실치 매력적 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적어도 나의 반려를 찾는일엔 성공한 생이 되는데 지금 카기도 마음이 흔들리기 않고 자랑스럽지 아니함은 글씨기 못한 女子의 마음이라 신념이 변했는지,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매력을 계속 유지하기 못한 남편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자고 단단한 바위처럼 냉정한 현실, 맨손으로 이 현실을 깨쳐 들어가려고 몸부림하며, 생활이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렵듯이나마 인식하게 된 이제 그 매력이란 남말조차 우스꽝스러울뿐이니, 나도 내 나이만큼은 알아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세월의 물결에 짝이고 짝이워서 안일과 권리가 주는 규범에 권여를 느끼고 그로 인한 생활의 화려함을 온근히 동경하게 까지 되었으니 나도 어기간이 俗物이 되었다는 증거일까?

얼마전 어떤 모임에서 유학생 부인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표가 나더라는 여담을 들은적이 있다. 생활의 범주가 그 사람의 생활 정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조그마한 아파트와 두아이 남편, 이것이 전부니 불쌍하지 않을 수 없겠다.

쉽게 맘에서 辟楚에 눈 어둡고 여유없는 생활비에 눈 마음 조려야 하고 사고싶은 물건은 바라만 볼수밖에 없으니 공기가 스며 들지 않을 수 있을까? 활활할 만큼 찬란한 이곳 여름날도 길알 잔디에서 하늘이나 바라다 봐야하는 내 경우는 불쌍하고 가난한 표가 나는 그 위에 처량하다는 표현쯤 하나 더 붙어야 할까 보다.

한지도 들리지 않는 꺾같은 매일들, 여자의 임무란것이 남편내조와 아이들 보살피는것이 전부이랄수 있지만 나머지의 향기란 맛이 있지 않은가? 값비싼 옷 등족한 생활비 멋진여행은 얻어도 좋다. 아직은 卞족이 살아 움직이는 취미들중 한가지만이라도 계속하게 될수 있다면 만족하려는 아내의 외모용을 남편은 알고 있는지. 나는 온전도 할줄 모르고 버스노선하나도 잘모르고, 영어도 신봉삼아, 명공이 같은 여자이니 어쩔수 없이 이 나머지 초차 박탈 당하는것은 당연 하다고 않을런지?

눈뜨면 닥고도 달려가서 어두워야 돌아오는 학생 남편을 가진 아내는 마주 앉아 대화할 시간도 힘들때가 많다. 책들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 나머지 향기를 찾겠다고 운운한다면 웃기기 말라고 일축할것이고, 나아가서 바쁘고 힘든 공부에 기쳐있는 가기를 이해할줄 모르고 못난 여자라 일난가지 이류메니 아예 입을 열지 않는게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늘 나 온지서 나와 이야기하며 산다. 나와 웃으며 나와 소원하며 나와 싸우며 나와 외치며, 그래서 그의 육포가 이루어지는 날 내 갈망과 소원과 고독감을 어떻게 초출해 보리라고 어리석게(?) 기다리는 것이다.

이쪽 낮은 어둠속에서 거쪽 밝은곳을 바라보는 즐거움, 여가 가려면 이쪽 어둠이 거쪽 밝음으로 될수 있으리라는 기대, 아무도 내가 그 명암을 가려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은밀한 의열, 그래서 내게도 숨은 기쁨이 있다고 스스로 위도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넘어 어둠으로 번지면서도 아는 몸짓으로도 아는 내일을 향하면서 남편의 卞常은 내게 등북이 되어야하고 두아이의 엄마가 된지도 오오랜 내게 찾아올 수 있는 번민은 시냇이우스의 조국이 아니라 생활 일것을 이드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傳言을 잊지 않으려 한다. 지는 때 대신 또 다른 새아가 솟아올랐고, 모두들의 가슴에는 새 설계가 한창 일때다. 이 겨울엔 원는이 그리도 많이 왔는지! 그러나 이젠 모든것이 녹는 소리, 나도 노여움과 불만과 서글픔과 외로움을 다 녹여버리고, 가서 답을 수 없는 마음은 아예 날려 버리는 연습을 시각하면서 또 한해를 살아야 할까 보다.

◆ 신입생들의 광장 ◆



일기 속에서

◀ 최 송 ▶

기꺼움 마저도 잊게 해준 빗소리의 의미가 지워
 질수록, 어린시절 낯사랑의 기억들은 단 하나의
 미련마저 잊혀진 마냥, 더욱 세월이 달리는 수레
 소리가 점차도 귀속에서 굉음을 만들어 가며 초조
 감을 숨기지 못해, 마지못아 어떤 기계 장치 속에서 마구
 마구 달려가는 나뉠들을 아취취 하며 보지도 못하고,
 시끄러운 벙시계의 오침소리에 함께 몰아 버리려고,
 시간을 즐길수 있는 여유를 가진 작자들을 염두에
 두기조차 못하며, 시간은 끊임없이 벉을 북게 만들
 도록 두들겨 대는 냉엄한 것들에 대해 단 한번의
 변명조차 거부당한채 그것들을 맞아가는 나를,
 첫눈이 몇번이고 내렸음 직한데를 느껴 보지도 못하고
 고, 안개 속에 갇히어 미등조차 못하는, 물
 인격을 자랑이라 나뉠대는 여러종류의 물 얼치속에
 압제 하여, 따스함의 정들이 만들어 내는 눈물들을
 셋느라 돌리는 탐방물에 금뿍 적시어도 언계나 갈라
 지는 듯한 나는 무엇인지도 잊어버리려고, 그속에
 섞여 있는 이런저런 것들은 그저그런 것들 이려니
 하는 안일에 나를 담아보는 것이, 어머니가 생각나는
 밤에, 앞으로의 꿈속에 모든것을 지워버릴수 있는
 단 한번의 용기보다, 따르는 유혹들과 함께 하는것에
 더욱 감을 주어도,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두려움을
 단 한번조차 달래보지 못한 두려움을,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늙장물 속에 주저앉아, 서그럽게
 주절거리며, 사랑이 없는 변명속에 아무런 변명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 초조함에 마비되어버린 오미
 러 색어버린 의식들에 굶고무 정답을 주기도 못한채
 못생긴 탐구토씨 대신 낯수 밖에 없는 퇴색해 버린
 욕망들은 더러운 의미의 가기가기 욕심들모써 나를
 찢어버렸어도, 그런 것들을 되살려, 단 한마디의
 잊혀진 위안들에, 어미석음을 함께하여 밤버둥 치는
 여유를 상실케한 짙았던 생활을 이놈 저놈 왕왕대는
 사랑할수 없는 본위기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밀리지 않는 병신같은 작자로 자신에 오술을 부리고
 실은 조그만 인격에 대해 욕기거리를 터벅터벅 때
 보아도, 시커먼 망치로 못생긴 내 이마를 두들겨
 대는 끝임울, 긴박에 망각해 버린, 얼마를 더 살아
 아 하는가에 대한 용감 무쌍단 반격의 용기를 찾아
 내지 못해, 그냥 그대로 허우적 거리는 삶에 대한

접수를 줄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피그러 들수 밖에
 없는, 군더더기의 가슴을 다나 더 달고서, 넘달머리
 가 나는 여러 것들의 중심에 대해, 탐구토씨 맞이
 하는 버터기화한 인간의 마지막 우울을, 사랑으로
 껌데기를 벗기려 한다는 미친 자의 광대 높음이
 아닌가 싶어, 숨을 주어야만 자는 밤꾼의 비 인격
 화에 깊은 동감을 주며, 배고파 움추러든 가슴속의
 우울에 붙어와야 할 따스한 단 하나의 위안이 없어,
 엄마의 시커멓게 노해버린 전내음을 그리며,
 하늘을 심껏 노려보며, 마냥 갖고 싶은 단한번의
 욕심을, 길건너 또 건너, 가슴을 뛰어 자 억지로
 라도 금근해 버린 인조의 사랑에, 모든 군더더기
 상념들을 날려 보내고, 사랑찾아 귀가 에리는 안
 겨울의 날치속에서 어어쁜 건반음에 나뉠시고,
 따오기 내려위에 한마디의 사랑을 싶어, 안개속을
 헤쳐가며, 모든 용감한 작자들의 다리 밑에 차돌
 밭이 하나 던져 버리고 싶은, 모든 상상을 굶어 굶어
 모아, 사랑을 거수 거수 만들어 내어 작은 건반음의
 울음에 맞추어, 그육한 노성달의 이리한 면에 모든
 욕망을 담보하여, 삶을 차곡차곡 세어 놓고, 길은
 따스한 한숨을 사랑과 우경과 손을 맞잡고, 마음껏
 내쉬고 싶은 낯 밤들의 연속에, 시달린 바보의
 뒤섞여 버린 일기 중 한장.

(대학원 - 소연빛 동구문제 전공)

*** The Forgotten Past ***

◀ Veronica Chang ▶

It wasn't easy learning to accept the fact that I was a minority in a place of majority. I disliked being "singled out" because of my small slanted eyes and black hair instead of the big blue eyes and blond hair. I remember the desire of wanting to be accepted as an American so much that I was willing to forget the past to try to be "Americanized."

The environment in which I lived made it very easy for me to be "Americanized." I went to a small private school where the 99% of the students were Caucasians and worked after school and on week-ends. At home, my brothers and I spoke Eng-

■ 신입생들의 광장 ■

lish or not at all. Then, I thought that I could never forget my native language even if I didn't exercise it but I was wrong because I did forget it.

It was last fall when I entered University of Washington, I realized the depth of my abuse and neglect of my homeland especially the language. I've always been ashamed that my Caucasian friends would ridicule the customs and cultures of my homeland so I hid it from them. I felt embarrassment and shame last fall, for having hidden something that I should've been proud of for so long that I had forgotten it.

The Korean students whom I met made an attempt to converse in Korean, at first, but when I could not comprehend fully, most turned to English for help. It was embarrassing and frustrating to find out that the language that sounded so familiar has turned into a foreign language. It's ironic how the tide has turned!

Almost ten years ago, I struggled to speak English and the little that I spoke was so full of Korean accent that it was hard for the natives to comprehend. Now, ten years later, I have to relearn the native language that I so easily threw away. It was uncomfortable trying to speak a language that I haven't spoken for couple of years at first, but when I made an attempt and my just being around Koreans and hearing them speak Korean was a big help in my relearning to speak and enjoy my native language.

I didn't regret the years that I tried to be "Americanized", but I did regret my forgetting my native language. It's sad when I see the younger generation losing an interest in their origin to be "Americanized." Someday, they'll regret that they lost their identity and may not know how to find it.

(학부생)

신입생으로서 보낸 3개월

◀ 김 두 호 ▶

내가 신입생으로 이 대학교에 들어온지도 벌써 3개월이나 지난다. 3개월이라 하면 귀감이 짧은

기간 같지만 나에게 있어서 지나간 3개월은 그 어느 시간 보다 길고도 짧은 것이었으며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고 모든게도가 들리는 점에서 오는 두려움과 기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내려는 것에 노력한 것만 같다.

벌써 나의 1/4이나 되는 인생이 지났으며, 그 1/4의 반을 배움터에서 책과 연필, 그리고 선생님과 시범 속에서 살아왔다. 지나간 12년간의 배움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운것은 사실이고 그 무엇인가를 실천하기 위해 아니 겉말을 내기 위해서 이 대학교에 들어왔다. 단지 3개월만의 짧은 기간을 가지고 신입생의 소감을 표현하려니 정말 말이 막연할 따름이다. 막연하다고 하는 나 자신도 정말 나의 느낌이 무엇이었는데 확실하게 밝힐수 없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언젠가 언젠가 신입생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 대강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이 학교에 들어오기전에 선배들로부터 대학교에 대해서 많은것을 들어왔다. 대학교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것이고 재미있는 것인지 말이다. 입학 1주일 전에는 누구 못지않게 기대와 꿈으로 꽂차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모든 과목에서 A를 받는 다든지 또는 20개나 넘는 학점을 따해서 3년에 졸업하려는등 여러가지 기대와 꿈들도 말이다.

대학교의 그 길고긴 첫번째 주가 지나가고 정상 체도에 오를때 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해야만 했는지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던것 같다. 처음 중간고사 에서 C라는 성적을 받고는 와! 이것이 바로 대학 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것같은 기분이었다. 이와같은 신입생으로 가져야 하는 병을 치르고 나니 큰구멍 하나가 나의 가슴에 생겨났고 그곳에 꽂차있던 꿈과기대는 대낮의 눈과 같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며 나뒤편 성적과 학점 그리고 시범의 3대1이라는 걸판장에 들어가 있었다.

이와같이 지나간 3개월을 보냈지만 학기 마지막 날 Final 을 치르고 나오는 그 기분을 표현 하기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 무엇에서 부터 개방된 기분이었고 Raquel Welch 가 와서 자루밤을 보내가고 매도 바꿀수 없고 이세상 천명의 미인 과도 바꿀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다.

오름과 내림의 첫번째 학기는 지나갔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가 만만한 선배들을 볼때면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기고 아직도 한가지의 기대와 꿈은 사라지지 않고 나의 가슴에 남아있음을 새삼 느끼게 만든다.

(학부생)

THE PLACE I BELONG

◀ Elizabeth Lee ▶

It was only a short while ago that I went back to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experienced the most fascinating time of my life. I felt as if I were going back home.

The traditional stories concerning Korea and its people, and reflections from other Koreans provided me with a broad sense of what Korea was like, but I really had no idea of what to expect. I had been told stories of country people and their hardships and of city people and their advancements, nevertheless, I was not to realize until I got there how meaningful this journey would turn out to be.

As I arrived at Kimpo airport, just seeing the many faces of the gathered Koreans made me feel as if "I were back at home." I could hardly believe that this tranquil "Land of Morning Calm", which I had read about in historic textbooks, had transformed into an industrious Seoul of today, but here I was challenged with the task of integrating and feeling accepted by fellow Koreans.

Some of the Koreans I met regarded me with a quizzical expression, often wondering to themselves, "what kind of Korean can't speak Korean? What kind of Korean can speak perfect English?" Irritated with this ambivalent attitude, I would retort, "The kind of Korean who wants to learn the language and its customs and whom you should help in their efforts." Some could understand my predicament but others, mainly elderly people, found it hard to imagine a Korean who couldn't

Going back to Korea was like going through a revitalization. Friends and family earnestly tried to show me the beautiful landscapes of Korea and teach me her language, and even stranger showed their interest in me. My relatives, especially, some of whom I've never met before, eagerly tried to create a comfortable and homey atmosphere for me. Special lunches and outings were planned, and stories of my father's childhood were told. My uncle in particular, made a personal effort to inform me of my family ancestry

but it was the combined warmth and affability of the many Koreans I met that made it even a more revered experience.

The beginning of my trip evidently turned out to be the hardest just as it was with my experience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My initial reactions were ones of ambiguity, conflict and apprehension. I was unsure of how to act or react to these Koreans, but I later discovered that it makes no difference what race you are, because as long as you are willingly to be friendly and open, others will reciprocate.

My fond memories of Korea and the happy moments spent with family and friends have taught me more about Korea and their culture than any teacher or textbook. The fascinating visits to historical sites, the excitement in downtown Seoul the peacefulness of the countryside and the kind hospitality of relatives and friends all call me back to Korea. Perhaps this is the place I belong but for now, America is where I am. (학부생)



■ 초머글 ■

뜻과 목적

◀ 서 영 민 ▶

아직도 낱파를 쓰면서 79년으로 쓰는사람들이 주위에 더러있겠기마는, 1980년대로 우리세대는 들어섰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이 깃건욱 울리면서, 지난 10년동안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랐다. 즉,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직접 "십년어치" 더한것이다. 그것이 능동적이던 수동적이던, 요는 바로 우리의 "어제"가 이미 과거로 또한 일장의 추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본인이 이곳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세대의 낱말들이는 대강이러하다. "자기자신의 존재가치와 끊임수 없는 인간관계 및 사회와 관련된 이"삼각관계"의 정의를 갈구하는 이상" 즉 길을 뜻한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걸지 않는 것이 아니다. 생경은 영원히 젊은 것이라고 본인은 주장가니까. 이곳을 서너대가는 "조"에도 본인의 실감은 영남이 이를 손관 시키고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존재성이 입증되고 이세상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음을 정의 가는것이다.

이글을 읽어내려가는 여러형제들의 보는 눈알에 본인의 인생 관념에 사사로운 공박은 피하도록 하자. 반면 냉철하고 명쾌한 판단과 더불어 본인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받아 들이고 이해 가면된다. 본인의 서문은 이곳에서 맺히고 본문으로 들어 갈가 한다.

"간만에 두가지의 일을 하려들면 감동이 생긴다" 라는말을 친구한테 들었다. 얼마나 쉽고 현명한 질문인가? 이 친구의 방정식대로 우리 모두가 산다면는 감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것이다. 본인의 추론이 알려주기는 우리세대는 감동을 하고있다. 그 감동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감동이 오늘 이글을 쓰고 있게 하는 것이다. 본인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이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인간현상의 그 핵심에는 "뜻과 목적"이 있다 생각한다. 간단단 이를 들자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 이 세상에 보내셨을때의 그 뜻과 목적. 하지만,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하는것은 그 본들의 "뜻과 목적"은 우리세대의 "뜻과 목적"과는 틀린 것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독립된

생명체 인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하여 적지않은 의문이 있을줄모 안다. 허나, 일단은 본인의 주관대로 보도록하자. 이점에 대하여서는 두에서 둘이 될것으로 믿는다.

"이런들 어더하리, 저런들 어더하리, 만수산...?" 라는 시를 우리는 기억 하고있다. 우리의 인생과정이 결코 긴것은 아니다. 우선이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주어진 시간동안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로 "인간"으로 태어나 어떤"뜻"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인생의 결실을 맺히느냐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볼 문제인 것이다. 인간철학은 "추론(Reasoning)"에서부터 나온다고 본인은 귀가 못박히게 들었다. 하지만 그 추론 자체만으로는 이 우주천체, 만물의 의문점이 해결되고 풀이되는것은 아니다. 그 의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이하야 나가는 그 "자세(태도)" 역시 중요한 것이다. 또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각에 팔십이 살고 있다는것. 즉, 이말은 우리들은 "현실"을 떠나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자기가 임하여 있는 "시대배경"을 냉철히 판단하여 자기의 책임감, 의무감을 본인 스스로 깨우쳐야된다. 그리고 그 깨우침이 보여주고 인도해 주는길(가각)을 본인자신의 신념과 기도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일단 그 신념이 개인의 성품에 사무치게 되면 그것 역시 담고 언마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취주의 운명까지 필사의 탐구 그리고 모험의 마음의 준비 태세"가 갖추어 져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개인의 "사상"인것이요 "철학"인것이다. 또한 이 사상과 철학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다. "사상" 자체에는 모순이 없다. 모순이 없것이 나오는 것은 각개인의 "적용(application & Implementation)"에 따라 그리고 개인이 속하여 있는 시대에 따라 방향과 각도가 잡히는 것이다. 도하나 명심하여야 될것은 모든것의 "기초"가 굳건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 기초는 어디에 거리를 두고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우리의 손으로 공사를 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들은 배움을 통해서 경험 이 쌓아기는 것이다. 바로 그 배움을 명철히 배우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학문을 배우고 기초를 다는중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은 각개인의 "이상"인 것이다.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형제들은 물론 열심히 배워야 할 것이다. 기초를 굳건히 하며 이와 동시에 각개인의 도덕, 윤리, 이성관념의 자리가 피워지는 것이다. 또 직업 건설에 있는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맡은 바를 충실히 또 자기의 일과 같이 보아 주어야 될것이다. 허나, 이곳에서도 본인이 기적라고 싶은것은 과연 각 개인자신이 "지금"종사하고 있는것이 "인류

■ 초대클 ■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인가를.

우리세대는 이 시각의 "사회(STRUCTURE)"를 배워야 할 것이고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래야만 개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전에 하나의 "상동 설명서"에 의한 짜여진 삶이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하여 있는 사회는 차질 같 못하면 "착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 착각에 의하여 도리될 수 없는 비극을 맞본다면 우리 모두의 과오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판단(decision making)"을 각 개인 스스로가 하여야만 한다. 물질은 영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간은 물질에 구속되면 아니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반듯이 필요한 것이 있다. 돈과 물질 그토인해 착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이 모두 불리듯이 각 개인의 철학도 남들과 틀린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통점(Consensus)"을 찾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본인이 주장하는 "뜻과 목적"을 말한다.

우리는 이땅에 첫숨을 쉬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선물"을 들고 나왔다. 즉 우리 모두는 "천부의 재능이 있는(GIFTED)"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선물이 무엇인가하면 다름 아닌 "창조력(CREATIVITY)"인 것이다. 본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순수하고 단 하나뿐인 창조력(creativity)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살려야만 되는 것이다. 이 선물을 못 사용할 경우에는 폐물 즉 우리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망각이란 비극이다. 이 선물을 갖고 나올 때 우리는 각 개인대로의 "뜻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 선물을 바르게 활용하려면 그 뜻과 목적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다. 이 사회의 어느 모퉁이여 우리가 있더라도 이것만은 필히 느껴야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물은 본인 자신만의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을 이 선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다. 그때야만 비로서 이 선물의 가치 즉 "뜻과 목적"이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물에는 남겨놓은 구별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고 또 다 같이 참여하여 나누어(Sharing)참맛을 보는 것이다.

우리 젊은세대는 이 긴박한 시간에 즈음하여 텔레비(TV), 의복, 자동차, 등 물질에 억매어 살고있는 이 사회에서 눈을 뜨고 관찰하여야 된다. 과연 각 개인이 하고자 또는 하는 일이, 학업이, 계획이 "누엇 때문에 무엇에 의하여 무엇을 떨컬려고"하고 도는 말 것인가를. 또

그일이, 계획이, 학업이 누구에 의하여(decision) 만들어졌는가를, 결심히 생각하여 볼 문제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심로 흥분하게 있다. 그리고 그일에서 얻고도 남을만큼의 "만족감"을 만직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감동하는 그 뜻과 목적만 명확히 판단하고 아무속히 방향을 갈을 때 우리는 이미 숨쉬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우리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우리 젊음을 불태우는 그야말로 이름다움의 극치를 맛보는 것이다. 그때야만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젊음의 "비결" 이상을 결코 망각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글을 맺지기전에 지금까지 본인의 주장은 대강 이러하다.

첫째. 우리는 우리자신을 항상 관찰하여야 된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관찰에서 느낀바를 재확인 하여야 된다.

셋째. 우리의 관찰에서 나온 주론을 현실에 항상 비교하여야 된다.

넷째. 우리의 주론에서 나온 결론은 본인의 뜻과 목적에 성립 되어야만 한다.

다섯째. 우리의 뜻과 목적은 본인의 창조력과 성립 되어야만 한다.

여섯째. 우리의 뜻과 목적이 창조력과 성립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성립을 우리의 인생의 신념으로 삼고 건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일곱째. 우리의 신념은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고 인간 사회에 이익이 되어야만 한다.

여덟째. 우리는 영원히 우리자신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인의 결론은 본인만의 결론이고 단안 것이다. 이 짧은 글을 통하여 나눌 수 있게 된 것, 본인은 수만 단 기쁨으로 느낀다. 비록 본인의 글이 미미하고 완숙하지 못할지언정, 본인이 이 글을 스고자한 "뜻과 목적"은 건단이 되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글에서 형제들이 조금이나마 유익한 점을 얻을 수 있다면 본인의 결심 즉 본인의 노력이 보람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뜻과 목적의 결심도 떨컬리라 믿는다. (또한 이 지상을 통하여 부락드리고 싶은 것은 이 "뜻과 목적"을 같이 나누우고 싶으신 본은 필히 연락을 바라이다. 아울러, 학생회에 바라고저 하는 것은 "젊음의 광장" 난을 학생회지에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

간호학과 편

◀ 김혜선 ▶

하여 우리 젊은이의 별치는 이상과 대과를 나눌수있게
꿈, 본인의 생각으로 "광고난" 하나쯤은 빠져도 상관
이없다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형제들의 뜻과 육각이
전달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본인은 저를 몰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사랑의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서 영민
입천구백팔십년 입월 심사일
새벽

(현 Seattle Central
Community College
학생 회장)

다음도 학생회지에 실릴 원고들 다음과 같이 모깁
합니다. 학생회의 회원, 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누구
든지 글을 보내주시는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고를 바랍니다.

논단 학생사회, 교포사회에 관한 문제, 또는
국내 국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에 관한 의견또는 모론.

연구 노트 또는 특우감 학생부인 유감
수필, 수상, 기행문 기사 자유 주제글
전공 순례 시 신입생 소감

"간오대"하면 다른 어느학과 보다 더욱 직업을
연관시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커싱턴 간오대학에
적용 두고있는 학생들은 겉모우리가 졸업된의 직업을
위해서만 대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실감
하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거의 반 이상은 물론 병,
환자간오에 대한 지식이기만 그밖 예도 고양이나 철학
에 관한 강의와 그에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특히
나에게 유익했던 점의 하나는 원래 여러사람들 앞에서
는 말을 잘 못했던 내가 학생그룹토의, 판앞에서 말도
하는 리포트, 환자 또는 다른 간오원과의 대화동등을
해야하는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별로 크게
부끄럼을 타거나, 속으로 떨리지 않아도 이야길 할수
있을 만큼 대담(?)해 졌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실습
을 아침 일곱시까지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하고, 가서는
신속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해야하므로 나의 천성적인
게으름의 정도도 덜해주지 않았나 싶다. 한편으로는,
내-외과 실습에 들어가면서 부터 마치 교수들이 우리를
성능좋은 컴퓨터로 착각하지 않았나 할 만큼 정신적인
압력과 예기지 못했던 고통이 있었고 또 그에대한 불평
도 여러번 했었다. 이게 앞으로 남은학기들 중에도
어떠한 고민을 하고 처리해 갔기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격언, "고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고통은 사람을 강
하게 만든다." 처럼 강하게 부딪쳐 봐야겠다.

커싱턴대 간오학과에서는 일년에 두번 봄과 겨울
에 기원서를 낼수 있는데 이번 봄부터는 예전에
별던 80명에서 60명으로 줄어 경쟁이 조금더 심해
지겠지만 아직 우리한국학생(4명)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것 같다. 우선 본과에
들어가기 필수 과목들(영어, 수학, 심리학외)을 일년
간 딱한후 간오학과에 들어가서는 약 3년간의 강의와
실습을 갖는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웹스사이언스
빌딩의 사무실 301에서 카운슬러들이 친절히 대답해
줄 것이다.

근래 동양인 특히 한국인 이민율이 높아짐에 따라
시애틀 한인사회에서도 우리국어와 영어를 함께 할수
있는 간오원들의 필요성을 느낄 것 같다. 오전번 처음
으로 병원에서 한국부인인 환자를 대하니 얼마나 반갑
던지. 내 반가움을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큰 우리
한국인들을 돕기 위하여 더 큰 의미로는 인류에 대한
봉사를 위해 남녀 불문하고 우리 간오 계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학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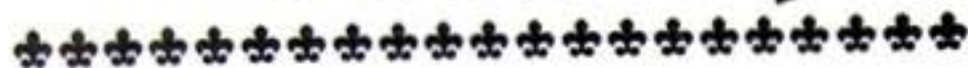
FIVE SEAS

오대양 식품점

BUS. (206) 363-6850
RES. (206) 365-9844

543 N.E. Northgate Way Suite C.
Seattle, WA. 98125

학생회 소식



신입생 환영회

학생총회가 끝난후 온타리오도장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학부에 단 30명 그리고 대학원에 단 20명의 신입생들도 이제부터는 우리 학생회가 200여명을 넘는 커다란 집안으로 번창했습니다.

11월 1일 KOREAN ART - 5,000 YEARS

지난 11월 1일 부터 올해 1월 13일 까지 SEATTLE ART MUSEUM AT VOLUNTEER PARK 에서 한국미술전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EAST ASIAN LIBRARY 에 계시는 MR. TOM KASA 께서 전람회를 구경하신 후의 감상을 글로써 주셨습니다.

11월 18일

한국 중남대학 여자배구팀 방문
 지난해 11월 18일 일요일 SEA-TAC 공항에 배구부 11명과 임원 5분이 도착하셨습니다. 20일 화요일 U.W. HUSKIES 와의 게임에서 3대0으로 통패이 이겼습니다.

12월 3일

한국 민속 예술전 개최 BURKE MUSEUM(U.W.)
 "THE SPIRIT OF TIGER" 라고 불리우는 한국 민속예술전이 전시 되었습니다. 전시 첫날에는 돼기 머리와 시루떡을 준비해서 고사도 지내는 광경을 볼수 있었음!
 U.W.에서 비고민속음악을 전공하시는 정성숙씨께서 한국고전무용을 선 보여주셨습니다.

12월 5일

학생회 주소록 발송
 U.W. 한국학생회 회원 여러분들의 주소들을 모아서 전화번호와 함께 발송해드립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빠진분은 저의 학생회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U.W. K.S.A.
 HUB ROOM 206M.
 UofW. SEATTLE, WA 98195

12월 28일

학생 망년회
 한해를 보내면서 학생 여러분과 망년의 서운함과 새해를 맞이하는 부른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망년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7일

서두수박사님 송별회
 이곳 SEATTLE 한인사회와 학생회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서두수 박사님 께서 SEATTLE 을 떠나셔서 동부에 아드님과 함께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의 학생회에서는 서두수박사님 께서 만수 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동정



이정복 학명 박사학위 끝내고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교수

최원도 학명 독녀

고영환 학명 독남

김정보학명 2세 소식에 짧은 거울방탁을 이용 귀국하는 일성을 과시

이준표학명은 짧은 거울방탁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길손을 끝낸 번개같은 솜씨를 과시.

박용수 학명께서 지난 여름에 서울에서 와온

지난 여름 상대를 졸업하신 이봉철 전 회원께서 지난 10월 L.A에서 와온

구경모 전 회원께서 지난여름 서울에서 와온

김신일 학명 이번 2월2일 이선재씨와 와온

카영선 학명 박사학위 끝내고 서울대학교 외교과 교수 부임

독서안내



309457	공공업 통계 보고서 경제 기획원
309459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평가 보고서 (제1, 제2편) 국무총리 기획 조정실
309464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경제 활동 3-1 인구이동, 주택 3-3
309499	불교성좌문학연구 안정섭 저 "1978"
309507	거기 수많은 길이 오화성 저 "1978"
309439	고바우와 함께 산 반평 김성관 저
309438	고바우 방랑기 김성관

편집후기

바쁘신 시간중에도 저의들을 위하여 원고를 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도 앞차고 창의력
있는 퇴지를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

이번으로 저의 학생 퇴지도 16번째 발간을 하게 되었습
니다. 은이들 잊어뜨는 "정순"을 예한할수 있을 나이가
된것이지요.

어떠한 일에도 은 경력을 다하며 왕성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5-6년 전만해도 월간으로 적은 분량을
발행하던 "학생 퇴보"가 이제는 30 페이지가 넘는 명실
공의 "학생 퇴지"로 성장했습니다. 옛말에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받아보기만 하던 퇴지에서 실제로 내어주는
입장에서 입을 때보니 그동안 수고하셨던 모든분들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 퇴지의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주십
시오. (K)

U.W. 한국학생회 회지 제 16 호

편집인 :
고 김 김 신 원 최
영 찬 호 수 숙 준 원
종 학 정 용 재 원

발행인 :
이 규 명
1980년 2월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국제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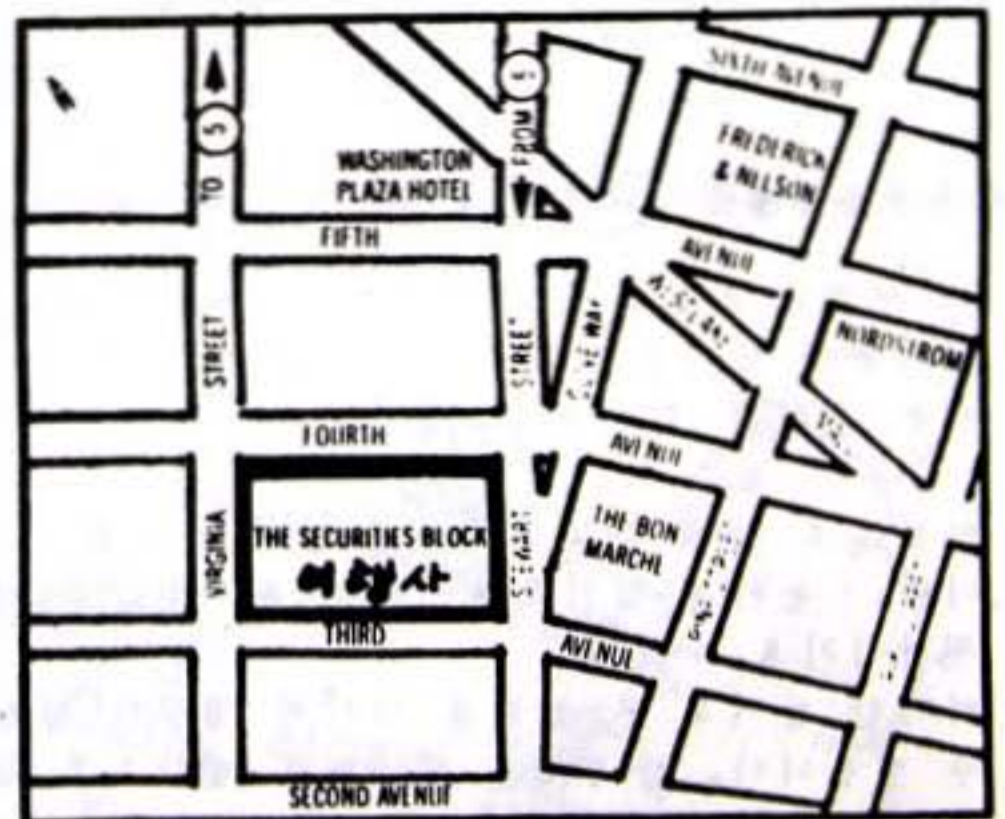
아퇴올 말씀은 씨애틀지역의 한인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일체의 여행업무대행과 가족초청 및 이민수속 서비스를 겸한 여행사를 차렸아오니 심부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여행사

이영호
이상인

영업종목:

- 국제 및 국내 항공권 판매
- 국내외 관광 안내
- 각종 여행 수속 대행
- 모국 방문단(단체·개인) 안내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서비스
- 공중업무 서비스
- 항공권 월부판매 알선



OFFICE: Securities Bldg. #635
1904 3rd Ave., Seattle, Wa. 98101

Phone: (206) 623-2157 or 623-2158 (Bus.)
367-1935 (Res.)

한국 식당 (EVERETT)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한번 꼭 오시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10% 할인 봉사합니다.

◀ 메뉴 ▶

즉석 곱창 } 전골개시
쇠고기 }
낙지 }

육계장 (매운탕)
곰탕, 비빔밥, 냉면
만두국, 떡국, 짜장면
오징어볶음, 낙지볶음
찜빵, 기타.

영업시간

월-목요일 ; 10:00 AM - 8:00 PM
금요일 ; 10:00 - 9:00
토요일 ; 11:00 - 9:00
일요일(공휴일); 휴업

* 오시는길 *

5번 Freeway Everett Exit 192에서
내려서 MUKILTEO 쪽으로 우회전 하시어 Colby와
Evergreen way 를 지나셔서 숲속 공원을 지나
첫 신호등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주소 216 OLYMPIC BLVD (206) 258-3220
EVERETT, WA. 98203

헨리 장 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 열가 봉사
- 국내외 항공권 판매 (월부)
- 가족초청 및 제반 여행수속 대행
- 국내 여행 안내
- 이민 상담
- 재정보증서작성



(206) 523-7057

9002 12th AVE. N.E. Seattle, WA. 98115

Fashion Express

THE LARGEST STORE WIDE

(Mon-Sat) 월 - 토 10 AM. - 6 P.M.
(Sun) 일 Closed

Women's casual dresses & Accessories

* 30% less than other stores

4226 University Way N.E.

동양식품



phone:

365-5540

11325 Roosevelt Way N.E.

취급업무

중소기업 장부정리
일반 인컴 택스
각종 세무 상담
은행 용자 알선
공증 업무 취급
사업 상담
퇴직 연금 상담
기밀 절대 보장

계리사

이 주 영

주소: 307 Broad st Seattle WA 98121

전화: 623-4181, 4182, 4183

한국식당

순 한국음식만을
제공합니다.

월-토: 11시 - 8시30분

일: 휴업

Korea House
Restaurant

622-1936

212 4th AVE. S.
Seattle, WA. 98104

BOOIL ARTS

fine art PRINTS, art Posters, and quality
custom FRAMING service.

on occidental park in pioneer square
211 Occidental Avenue S.
Seattle, Wash. 98104

624-8930



APPROVED AGENCY

유일한 공인된 여행사



MEMBER

Kim's Travel Service

김'스여행사



- INDIVIDUALS
- GROUPS
- TOURS
- AMTRAK
- AIR LINES
- STEAM SHIPS
- HOTELS
- TRAVEL INSURANCE

BUS: (206) 624 - 2227/ 624 - 2228
RES: (206) 364 - 9934

Room 619 . 603 Stewart. Lloyd Bldg. Seattle, Washington 98101



the flower studio

Madison Park
Bus: 322-3990 / Res: 367-1534



- 결혼 · 약혼식 꽃
- 실내용 화초
- 각종 축하용 화분
- 장례식 꽃 등



배달도 해 드립니다.

김철준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367-1534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We guarantee tomorrow today

주소 : 4121 SEA-FIRST BLDG.
SEATTLE, WA. 98154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곳이던지
친절하고 가장 경제적인 여행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KOREA

KYONGJU



CHEJU

SEOUL / PUSAN

한국 여행사

Korea Travel Service

307 BROAD ST.
SEATTLE, WA 98121

(206) 623-4181 (OFFICE)
(206) 322-3782 (HOME)

Ask for: **SUK-KI HONG**
KEUN-TAK SUH